

코스피	코스닥
3245.44 (-9.03)	805.24 (+1.57)
금리 (연·%)	환율 (원·달러)
2.460 (+0.006)	1392.15 (+9.05)

韓美 상호관세 15% 타결...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31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영업이익 ‘반토막’ 하반기 반등 기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2023년 4분기 이후 가장 저조했다. 재고 관련 비용 증가와 함께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 제한이 실적에 부담을 줬다는 분석이다. 다만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 회복과 모바일·디스플레이 사업 성수기 진입에 맞춰 인공지능(AI)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실적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올 2분기 매출이 74조 6000억원, 영업이익은 4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0.67%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55.23% 감소했다.

반도체부문(DS)은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 제품과 파운드리 주요 거래선에 대한 판매 확대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1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대중 제재 영향에 따른 재고 충당 발생으로 전분기 대비 8000억원 감소했다. 디바이스부문(DX)은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효과 감소와 TV 시장의 경쟁 심화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16%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1조 4000억원 감소했다.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DS부문 매출은 27조 9000억원, 영업이익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메모리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3E와 고용량 DDR5 제품 판매 비중 확대를 통해 서버 수요에 적극 대응했으며, 데이터센터용 SSD 판매도 증가했다. DX 부문 매출은 43조 6000억원, 영업이익 3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부문(MX)은 신모델이 출시된 1분기 대비 판매량은 감소했으나,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견조한 판매가 지속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성장했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韓 자동차 15% 관세 부과 합의
조선업 등 3500억달러 투자 협정
농축산물 시장 보호 지속 가능
반도체·의약품 최대국 대우 예상
2주 내 백악관서 ‘한미정상회담’

우리나라가 31일 미국과 관세협상을 이뤄냈다. 앞서 미국은 8월 1일부터 한국에 관세 25%를 물리겠다고 했지만, 이번 합의로 대미 수출품들의 관세는 15%로 낮아졌다. 다만 자동차 부문은 기존 0%에서 15%의 관세가 새로 생겼다. 그러나 가장 큰 우려가 제기됐던 이었던 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관련기사 3·4·6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추후 부가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양국 조선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1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선박 건조·MRO·조선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한국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다. 또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는 반도체·원자력발전·이차전지·바이오 등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이뤄진다.

김용범 실장은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31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에 적용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무역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며 “미국 통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달러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으로 국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이뤄지지 않는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지만, 이를 관철하는 데는 실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한선을 15%로 잡아서다. 이에 한국산 자동차에는 15%의 관세가 새로 붙는다. 그간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았지만, 일본과 유럽 연합(EU)은 2.5% 자동차 관세를 부담해왔다. 그래서 우리측은 “일본·EU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를 포함한 것이니, 한국은 12.5%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측이 15%에서 물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김용범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

신의 SNS에 ‘한국의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합의된 바가 없다”며 “대한민국 농업 분야는 99.7%가 개방돼 있다. 0.3%,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고, 미국 소고기도 제1수입국이다. 이런 부분을 통상이나 다른 부처들이 상당히 많이 공감해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무역협상 타결로 한미 정상회담도 조만간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일정은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美 연준, 금리 동결... 트럼프 압박에도 변동 없이 유지

연준 이사들 금리인하 찬반 갈등
파월 “물가 상승에도 경제 견고”
관세정책 영향 고려해 금리 동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기준금리를 기존과 같은 4.25~4.5%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금리인하를 압박해 왔음에도 금리를 내리지 않은 것이다.

연준은 지난 29~3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4.25~4.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후 다섯번째 금리 동결이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이날 파월 의장은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물가는 2% 목표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기대인플레이

이션은 여전히 잘 안착돼 있다고 강조했다.

연준이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로 보고 있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 지수는 지난 4월 2.1%를 기록했지만, 5월 2.3%로 상승했다. 다만 앞으로 1년 뒤 소비자가 예상하는 물가인 기대인플레이션은 3.2%에서 3.0%로 하락했다. 아직은 경제가 견조하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파월 의장은 관세정책의 영향을 파악하기까지는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세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일회성 이벤트로 단기적으로 그칠 것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지만,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며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가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제한적인 통화정책이 적절하다”고 했다.

다만, 관세정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준회의에 참석한 11명의 연준 이사 가운데 9명은 금리동결을 지지했지만 2명은 금리인하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FOMC 이사 중 2명이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1993년 이후 처음이다.

금리동결에 반대한 미셸 보우먼과 크리스토퍼 월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들이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서울구치소 “尹이 완강하게 출석 거부... 건강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권성동 “통일교와 금전·청탁 등 부적절한 관계 맺은 적 없어” /사진 뉴시스

▲조경태·양향자, 연대 논의... “현재 룰로 혁신 후보 당선 어려워”
▲경실련 “이재명 정부 1기 인사검증 총체적 실패... 인사기준·절차 공개해야”

▲장동혁 “당 대표 된다면 적절한 시점尹 면회할 것”
▲진성준, 국힘 ‘필리버스터’ 예고에 “몽니 부리지 말고 입법 동참”

민생회복 소비쿠폰, 내수진작 효과 가시화

프랜차이즈·편의점 등 매출 상승

맘스터치 등 외식업체 매출 상승
편의점, 김치·간편식 등 구입 ↑
4050 세대, 정부정책 신뢰 상승
50대 65% “세금 돌려받는 느낌”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도입 일주일 만에 가시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내고 있다. 실제 프랜차이즈 치킨과 피자 등 외식 브랜드의 매출이 반등했고, 편의점에서는 김치, 도시락, 음료 등 생필품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총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들어갔다. 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15만~50만원이 차등 지급되며,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쿠폰 지급 첫 주부터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매출 상승 효과를 확인했다. bhc를 운영하는 다이닝브랜드그룹에 따르면, 22일부터 27일까지 매출이 평소보다 약 10%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주문 건수는 12% 늘었다. 맘스터치는 공공배달앱 '뽕겨요'와 연계한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매출이 전주 대비 51% 급증했다. 이밖에 맥도날드·롯데리아·노브랜드버거 등 햄버거 프랜차이즈 역시 매출이 5~20% 늘었다.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된 대형마트·백화점 대신 접근성이 뛰어난 편의점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이들이 늘면서 고기, 간편식, 생필품, 쌀 등 장보기 품목의 매출이 늘었다. 객단가도 상승했다. GS25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치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93.7% 폭증했고, 과일(62%), 간편식(20.6%), 가공식품(24.0%) 등 전반적인 생활밀착형 품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목의 매출이 큰 폭으로 뛰었다. CU도 김치(26%), 간편식(23.8%), 음료(44.6%) 등 대부분 주요 품목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상승을 기록했다.

편의점들은 소비쿠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할인 행사 상품을 늘리거나 신선식품 비중을 늘리고, 사용처 안내 문구를 부착해 고객 유입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소비 진작 흐름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쿠폰 활용 의향이 높은 항목은 외식 및 음료(70.0%), 식료품(63.7%), 생활용품(50.0%)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품목이었다. 응답자의 과반(51.0%)은 소비쿠폰을 '생활비 절약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생필품과 특별소비를 병행'하겠다는 의견은 25.8%, '고급 외식 등 특별 소비'에 활용하겠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정책 체감 효과는 중장년층에서 두드러졌다. 50대 응답자의 64.5%는 “세금을 돌려받는 느낌이 든다”고 응답했고, 53.5%는 “이런 정책이 있는 나라에 살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 역시 4050 세대를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당분간 내수 진작에 긍정적 효과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시적인 소비 확대에 그치지 않도록 재정 지속성과 정책 설계의 정교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식업체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여름철 외식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가맹점 운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 만족은 물론 가맹점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법인세수 늘리고, 서민 소득세 부담 줄인다

이재명 정부 1호 세법개정안
법인세수 2년 내 4조5000억 ↑
과세표준 3000억 이상 25%

법인세수 비중을 다시 늘리고 중산층·서민의 소득세 부담은 덜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러한 세법 개정안의 발효 시 법인세수가 향후 2년간 약 4조5000억 원 증가한다. 이에 반해 소득세수는 2000억 원가량 줄어든다.

또 주식 매매에 따른 증권거래세율이 높아지는데 반해, 대주주 기준은 부유금액 기준으로 더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법인세율을 지난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내놴다.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3000억 원 이상은 2022년 수준인 25% 적용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동안은 24%였다. 이어 200억 원 이상~3000억 원 미만은 22%로, 2억 원~200억 원은 20%로, 2억 원 미만은 10%로 환원한다. 지난 3년간 각

각 21%, 19%, 9%를 적용받아 왔다.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 부담은 경감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상향한다. 다만,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 상향이다. 또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월 20만 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개편안에 담겼다.

교육비 부담도 완화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1~2학년(만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한다. 아울러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 요건을 폐지한다.

주거비 부담의 완화도 담겼다. 근무 목적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부부합산으로 연 1000만 원 한도

다. 그간 세대주 1인만 공제가 가능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에 대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늘린다.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시 세부담을 완화한다. 현행 기준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대비 '50% 이상 감소'가 '20% 이상 감소'로 개정을 추진한다.

주식 양도 시에 붙는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복구한다. 코스피가 0.05%, 코스닥이 0.2%로 오른다. 코스피의 경우 2024년 0.03%, 2025년 0%를 적용받았다. 코스닥은 각각 0.18%, 0.15%였다.

또 주식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린다. 이를 통해 법인세수가 2026년에 전년대비 2227억 원, 2027년에는 4조3588억 원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반면 소득세수는 2년간 2296억 원 줄어든 것으로 봤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6월 소비, 4개월 만에 증가 전환 산업생산 늘고 투자 부진은 지속

반도체·차 생산 증가, 설비투자 감소
건설업체 실적 반등, 수주 부진 여전

지난 6월 소비가 넉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지난해 이후 부진을 거듭해 온 소비가 하반기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산업생산도 4~5월 두 달 연속 감소한 이후 늘었다. 설비투자는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건설투자는 반등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소비)가 전월과 비교해 0.5% 늘었다. 3월부터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넉 달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준내구재(4.1%)와 비내구재(0.3%)에서 판매가 증가했는데 품목별로 가전제품, 가구, 화장품, 음식료품 등이 전체 소비의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승용차·통신기기, 컴퓨터, 차량연료, 의약품 등은 감소했다.

최창윤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소비 심리가 지난달과 이번 달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소비쿠폰이나 정책 향방을 지켜봐야 하지만 증가 전환이란 측면

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1.2% 증가했다. 4월과 5월 감소 이후 반등이다. 반도체(6.6%), 자동차(4.2%), 금속가공(4.7%) 등에서 생산이 늘어났다. 반면 전자부품(-18.9%), 기계장비(-1.8%), 기타운송장비(-2.2%)는 줄었다.

제조업 출하는 전달보다 1.8% 늘었다. 내수 출하(2.0%)와 수출 출하(1.5%)가 함께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전월에 비해 3.7% 감소하며 4개월 연속으로 뒷걸음질했다.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1.7%)에서 투자가 증가했으나 운송장비 투자가 14.8% 급감했다.

다만 건설기성(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은 6.7% 늘었다. 지난 2월 이후 4개월 만에 증가 전환이다. 건축공사 실적이 10.3% 늘며 반등을 견인했다. 토목공사 실적은 2.8% 감소했다.

그러나 선행지표 성격인 건설수주가 '전년동월 대비'로 13.6% 감소하면서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모건스탠리 “내년 초 이후 금리인하 예상”

》1면 ‘美 연준, 금리 동결...’서 계속

이들은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고 고금리가 유지될 경우 고용 시장이 곧 약화될 수 있다”며 금리 인하를 지지했다.

시장에서는 취업자수 증가보다 실업률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야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BNP파리바는 “파월 의장은 현재 통화정책이 경제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취업자수 증가보다는 실업률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야 금리인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DB도 “9월 인하를 위해서는 실업률

등 고용지표의 추가적인 악화가 필요하다”며 “파월이 고용증가가 둔화되고 있지만, 노동공급과 함께 축소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볼 때 연준이 단지 고용자수 증가폭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금리인하는 내년 초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모건스탠리(MS)는 “파월 의장은 관세의 영향이 인플레이션에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 정책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준이 올해 금리를 동결하고, 관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초 이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올 실적 ‘상저하고’... AI·로봇 중심 성장세

》1면 ‘삼성전자 2분기 실적...’서 계속

삼성전자는 올해 실적이 ‘상저하고’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AI와 로봇 산업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산하며 IT 시장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실적 악화 주범으로 꼽혔던 반도체 부문이 2분기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실적 회복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재준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당초 2분기 여러 불확실성으로 메모리 시장을 보수적으로 전망했었지만, 업계 내 GPU(그래픽처리장치) 공급 개선이 가시화되며 AI 수요가 본격 늘어나기

시작했고, 중반부터 업황 개선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제품 판매 확대와 전장 매출 증대를 통해 성장세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메모리는 D램의 경우 HBM, 고용량 DDR5, LPDDR5x, 24Gb GDDR7 등으로 AI 서버용 제품 수요 강세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낸드는 8세대 V낸드 전환을 가속하면서 서버 수요에 대응해 고용량, 고성능 D램·서버용저장장치(SSD) 판매를 확대할 전략이다. 파운드리에는 GAA 2나노 공정을 적용한 모바일 신제품 양산을 본격화하고 주요 거래선 판매 확대를 통해 가동률 향상과 수익성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조선업 특수 기대, 車·반도체 가격 압박… ‘업종별 희비’

조선업, 대규모 투자로 새 기회 모색
車, 15% 관세 부담에 수익성 우려
반도체, 가격 인하로 경쟁심화 전망
철강·제약·에너지 영향 제한적 예상

한국과 미국의 상호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내 산업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향후 타격이 예상되는 반면 조선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철강과 제약 등 대부분 업종은 당장에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한미 무역협약의 ▲15% 관세율 ▲대미 투자 3500억달러 ▲미국산 에너지 구매 1000억달러 ▲시장 완전 개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품목별 관세와 투자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 발표와 유사하다며, 자동차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반도체와 제약은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업종에는 부정적 요인이 크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 인하에도 수



자성대부두에서 출항을 위해 바지선에 선적된 모습.

/부산항만공사

익성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일본계 7개 브랜드의 판매량은 588만대(점유율 37.1%)를 기록했으며 독일 3사를 포함 유럽계 브랜드는 162만대(10.3%)를 판매했다. 현대차·기아는 170만대를 판매했으며 점유율 10.8%를 기록했다.

이번 관세율 하향 조치는 현대차·기아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가 지난 4월부터 25%의 자동차 관세로 2분기

영업이익에서 총 1조 614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현대차·기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8%, 24.1% 감소했다.

다만 12.5% 관세를 확정된 일본과 EU 자동차와 경쟁해야한다는 점에서 수익적인 면에서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현대차증권은 이날 ‘트럼프 관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은 각각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이번 15% 결정은 2.5% 포

인트의 역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결과”라며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7~8% 수준인데, 15%의 관세는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종은 15% 관세 부과 시 수출가격 인하가 불가피해 미국향 제품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가격 저항을 줄이기 위한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업종은 조선

이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상 합의안에 따르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특화 펀드로 선박 설계· 건조, 기자재, MRO(유지, 보수, 정비) 등 조선의 전 생태계를 현지에 구축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국내 조선사와 전후방 관계업체들은 미국향 새로운 특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을 뚫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철강, 제약, 에너지 등은 중립적 영향이 예상됐다. 철강은 기존 50% 관세가 유지돼 변동이 없고, 제약은 관세 영향으로 수익 악화 가능성이 있으나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다. 에너지는 미국산 LNG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기존의 중동산 도입분을 대체하는 수준이어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물류비용이 추가될 수 있지만 미국산 LNG의 상대적 낮은 가격에 상계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건설, 화장품 등은 관세 합의로 불확실성이 완화돼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흐름이 기대된다고 현대차증권은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산업계, 수출환경 개선 기대… 철강업계는 추가 협상 필요성 강조

반도체, 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철강, 시장 상황 분석 후 전략 수립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산업계 전반에는 우선 불투명성이 해소된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 인하로 향후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기존 2.5% 관세에서 12.5%를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업계는 미국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조정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이

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한-미 관세 협상과정에서 지난 4월부터 적용돼 온 25% 고율의 자동차 관세가 일본, EU 등 경쟁국가와 동등한 15%로 감소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 자동차시장은 우리나라 수출물량 278만대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시장으로 우리나라가 일본, EU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며,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없어진데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품목 관세가 이르면 시일 내에 수출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자동차업계가 국내생산기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등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대차그룹은 “대미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해주시는 정

부 각 부처 및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기아는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애초 차 관세를 12.5%로 요구한만큼 이번 결과가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한국은 FTA를 통해 미국 자동차 관세율이 제로였다”며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산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음 달 중 품목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반도체 업계는 협상 타결을 반기는 한편, 추후 관세 부과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업계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인 품목별 관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최혜국 대우를 해주기로 약속했으니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자업계는 “한미 양국 간 협상 타결을 통해 불확실성이 감소됐다”며 “이번에 발표된 합의 내용의 세부 사항들에 대한 양국 간 추가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선업계도 미국과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협력펀드로 선박건조와 MRO 조선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자국 내 선박 건조만 고수했던 보수적인 미국 시장을 개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신규 시장 진출을 미국은 조선업 재부흥을 얻을 수 있어 양국에 공

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세계 최고 설계·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조선 기업과 소프트웨어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이 협력을 통해 향후 자율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다만 이미 50%의 품목 관세를 받는 철강업계는 상호 관세 협상 타결과 별개로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철강 업계는 “일본이나 유럽연합(EU)도 똑같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결국 국가별로 철강 품목과 관련한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국 시장에서의 고전이 예상돼 향후 미국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품목별 수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이승용·차현정 기자 ysw@

코스피, ‘관세 타결’ 이후 실적·내수 회복이 변수

관세 타결 호재에도 1% 하락
JP모건 “코스피 5000 가능” 전망
전문가들 “실물 흐름이 관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31일 코스피는 0.28% 하락한 3245.44에 마감했다. 8000억원 가량의 기관차익 매물이 쏟아진 영향이다. 개인과 외국인도 각각 3600억원, 3400억원어치 주식을 샀다.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포스트 ‘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로 이동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나 비효과를 불러온다면 코스피가 5000시대가 꿈만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앞으로 2년 내 코스피 지수가 50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근거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하나로 지목했다. JP모건은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한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추가 매수를 권한다”면서 “관세 우려, 성장 둔화, 채권시장 변동 등 글로벌·지역 증시 변동은 빠르게 매수세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했다.

과제도 있다. 기업과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실적 제자리 찾기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기업이익이 제

자리인데 주가만 오르길 기대하는 건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시장 자체가 매력 있어야 기업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자금도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기적으로 수출흐름과 경제지표에 따라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앞서 상호관세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며 “불확실성

이 해소된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에서 하반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비롯한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 기업들의 실적 흐름 등을 종합해서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의 한 축인 내수도 온기가 돌아야 한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결과, 주요 기업 4곳 중 1곳(25.7%)은 올해 하반기 최대 경영 위협으로 ‘내수부진·경기침체’를 꼽았다.

/신하은 기자 godhe@

속이려는 자

속지 않는 자

당신 보이스 피싱 타짜였어

AI 안심은 KT, KT는 AI

KT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보이스피싱 범인 목소리, AI 위/변조 목소리 실시간 탐지

• 삼성 갤럭시 S23 이상 단말(메모리 8GB 이상, CPU Snapdragon 8 Gen2 이상 또는 Exynos 2400 이상)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후후 설치 필수(최신버전 4.18.0 버전 이상) • 후후 통화녹음 앱 설치 필수(최신버전 13.0 버전 이상) • 자세한 내용은 kt 고객센터 100번, 후후 앱 참조

kt, 당신과 — 미래 사이에

與 “국익중심 실용외교” vs 野 “합리적 협상인지 의구심”

韓美 통상협상 타결

與 “한미 산업협력·동맹 확고해질 것
특히 농민 생존권·식량 안보 지켜내
산업혁신 지원 입법 적극 추진”

野 “협상 시한 쫓겨 많은 양보해
4500억弗 대미투자… 과도 금액
비관세 장벽협상 구체적 언급 없어”

여당은 31일 한미통상협상 결과를 두고 “국익중심 실용외교”에 성공했다며 자화자찬했다. 반면, 야당은 경쟁국의 대미 협상과 비교했을 때 우려했던 점이 많으며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미 통상협상 결과를 두고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는 옳았다”며 고평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7월 국회에 남은 5일을 민생개혁입법 2차 슈퍼워크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한국에 8월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가 15%로 낮아졌다”며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역시 15%로 낮았다. 일본 및 EU(유럽연합)와 같은 수준에서 타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최혜국 대

우를 약속 받았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들과 동등 또는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조선업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달러와 반도체, 에너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는 분야에 대한 대미투자펀드 2000억불도 조성하기로 했다. 일본의 36% 수준”이라며 “지난해 대미 상품 무역 흑자는 일본이 694억달러, 한국이 660억달러로 비슷한 수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일본보다 덜 내어주면서도 동일한 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위원들은 “협상 타결로 큰 고비를 넘겼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박덕흠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A)이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다”며 “실용주의 외교 노선 아래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동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율이 제로(0)였다.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리고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그리고 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로 4500억달러의 대미투자과 구매가 필요한 사안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협상 타결을 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다행일 수 있지만, 그 조건과 규모 면에서 과연 국익을 지킨 공정한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관세 장벽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서도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 의문을 자아내고 있으며, 앞으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여지만 남겨 어느 수준까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정부가 관세 협상을 안보 사안과 연계해 ‘패키지 딜’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협상 결과에 안보 관련 합의는 포함되지 않아 협상의 지렛대 역할로 사용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2주 뒤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주한 미군 감축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막대한 안보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外人 부동산 취득요건 강화… 국민 역차별 해소”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안정TF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개정안 마련
外人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의 취득, 보유 및 양도를 단계별로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안정태스크포스(TF)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안정TF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27 정부 대출 규제에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차단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 은 여전히 아무런 장벽 없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많은 국민이 허탈해 하고 계신다”며 “특히 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안정태스크포스(TF)가 31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의 취득, 보유 및 양도를 단계별로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의 모습. /박태홍 기자

근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만 외국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1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 국민의 신청은 16.1%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말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이미 10만 채를 넘어섰고, 이중 상당

수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이 시장 가격을 자극하고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국민은 집 걱정에 시달리고, 외국인은 소위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좋은 입

지에서 투기적 이익을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해외 주요국은 이미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매도 시 매수인에 매매대금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있다”며 “또한 캐나다는 2027년까지 외국인의 대도시·인구 밀집지역 주택 매입을 금지하고 있고, 호주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당론법안으로 추진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신설 ▲국가기관시설이나 안보관련시설 인근 토지거래 특별 관리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매입 외국인에 대한 의무 부과 등이 담길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합리적으로 규제·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역차별을 반드시 해소하고, 주택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권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6·27 대책을 발표하자, 국내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내국인에 역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단순신고로 허가 없이 취득 가능하고 외국인의 주택거래 관련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어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 10만 216호 중 서울과 경기 소재 주택이 각각 23.7%, 39.1%를 차지했다.

앞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안정TF는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를 열고 내국인과 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네거티브 규제방식’ 대전환 필요”…李 대통령, 기업 불합리 제도 수정 의지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제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31일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항목 외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



이 말했다.

특히 이날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실에서 제6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들이 많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이날 타결된 것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 같이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기업

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허용되는 것을 기제하고, 그 외에는 못하게 막았는데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민간 영역의 발전 속도를 공공 영역이 따라갈 수 없다”며 “사실 공공 영역이 허

용되는 것들을 다 정하게 되면 민간의 발목을 잡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첨단 신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신속하게 규제 혁신 기구를 정비해서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예진 기자 syj@

SK이노베이션은 답을 찾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면
(세계 각지에서 직접 찾아낸다는 답)

매연도 소음도 없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전기를 만든다는 답)

AI시대, 필요한 에너지가 다 다르다면
(누구에게나 꼭 맞는 다양한 해법을 준비한다는 답)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엔무브

SK 인천석유화학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에스온

KB라이프, 두 분기 연속 카드 추월… 비은행 판도 재편

KB금융 비은행 순이익 3위 경쟁
라이프 순익 1891억, 카드 1813억
보험·투자호조에 매출·순익 급등
하반기 업황따라 순위변동 가능성

KB금융의 올해 상반기 실적에서 KB라이프생명이 1·2분기 연속으로 KB국민카드의 순이익을 앞섰다. 비은행 내 순익 서열이 ‘손보 1위·증권 2위’ 구도 속에서 3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 KB라이프가 카드보다 근소하게 우위에 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의 상반기 실적 가운데 비은행 부문에서 KB손해보험이 순이익 5581억원으로 선두를 지켰고 KB증권이 338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KB라이프생명 1891억원(개별 재무제표 기준), KB국민카드 18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분기 흐름을 보면 지난 1분기에 KB라이프 870억원, KB국민카드 845억원



정문철 KB라이프 대표이사

으로 KB라이프가 근소하게 앞섰다. 이번 2분기에도 KB라이프 1021억원, KB국민카드 968억원으로 격차가 확대돼 올해 들어 두 분기 연속 ‘라이프’카드 구도가 확인됐다.

KB라이프 실적의 배경으로는 건조한 보험손익(1517억원)과 투자손익

(1098억원) 개선이 동시에 작용한 점이 꼽힌다. ROE(자기자본이익률)는 8.77%로 전년동기 대비 1.29%포인트(p) 상승했다.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은 3조88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3% 증가했다. 지급여력비율(K-ICS 242.2%) 건전성 지표도 올 1분기 대비 상향됐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상반기 매출확대와 사업비 집행 효율화 추진 및 보험수지 증가로 경상이익이 확대되면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기존 계획대비 각각 30억원, 581억원 초과 달성했다”며 “종합건강보험과 연금보험 판매 활성화에 따른 매출 증가로 CSM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KB국민카드는 수수료율 인하 등 비이자이익 둔화 영향으로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29.1% 감소했다. 다만 2분기만 놓고 보면 순익은 전 분기 대비 14.6% 증가했다. 2분기 연체율은 1.4%로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관리 강

화 노력에 힘입어 전 분기보다 0.21%p 개선됐다.

KB국민카드는 “자본효율성 관점의 성장, 비용·사업 효율화, AI 기반 신용평가모델 고도화를 통한 리스크 정교화를 통해 내실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B금융의 비은행부문 전체 구도를 놓고 보면 KB손해보험의 1위 고착화, KB증권의 2위 안착, 라이프·카드의 3위 경쟁이란 축이 뚜렷해졌다. 정문철 회장 취임 이후 KB라이프의 존재감은 상반기 ‘두 분기 연속 카드 상회’로 한층 부각됐다.

그렇지만 라이프·카드 간 순이익차는 78억원에 불과해 하반기 업황과 일회성 요인에 따라 순위 변동 가능성도 열려 있다.

상반기 흐름이 이어지려면 KB라이프의 ‘이중 엔진’(보험손익+투자손익)이 3분기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특히 상반기 실적에서 투자손

익 기여가 컸던 만큼 금리와 증시 변동성에 대한 민감도 관리가 관건이다. CS M 확대와 유지율, 비용 효율화 같은 체질 지표가 동시에 받쳐 주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KB국민카드의 회복력도 변수다. 2분기 순익은 전 분기 대비 개선됐지만 수수료·마케팅 비용·신용비용의 조합이 하반기에도 완화된지는 지켜봐야 한다. 손보·증권의 견조세가 유지될 경우 비은행의 1·2위 버팀목은 공고해지고 라이프·카드의 3위 경쟁은 업황과 일회성 요인에 따라 접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KB라이프 관계자는 “금리인하 및 제도변경에 따른 자본 변동성 증가로 자본관리 정교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미래 신사업 성장전략으로 그룹 시니어사업과 연계해 요양사업 신규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업계 선도적 지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설계·비용·타당성까지… 조합원 표심 향한 전방위 공방

부동산 현장 르포

삼성물산 vs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홍보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한 달여 앞두고 단지 인근에 홍보관을 열어 조합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홍보관 모두 평일 한낮에도 상담을 받는 조합원들로 북적였다. 자사의 사업조건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경쟁사의 허점을 비판하며 난타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31일 정비업체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다음달 23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 대우 씨밋 프리니티… “압도적인 사업조건”

대우건설은 리뉴얼한 씨밋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워 사업조건이 압도적임을 강조했다.

제안한 단지명은 ‘씨밋 프리니티’다. 공사비는 3.3㎡(평)당 869만6000원, 총 6778억원 규모다. 공사기간은 47개월, 철거 포함 54개월이다.

사업 조건 가운데서는 조합이 4000억 원 규모로 추정한 필수사업비에 대해 ‘CD금리+0.0%’로 확정했고, 분담금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없이 입주 시 납부토



(왼쪽부터)삼성물산의 ‘래미안 루미원’과 대우건설의 ‘씨밋 프리니티’ 모형도.

/안상미 기자

삼성물산
지하 주차·조망권 확보 내세워
가구당 9.6억 이익가능 계산까지
대우 설계 정비계획 위반 정조준

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의 계약서(안)를 100% 수용했다. 시공사 선정 후 조합과 시공사 양측이 계약 협상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기간을 없애겠다는 의도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분양 수입을 극대화하고 사업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사업조건 면에서 대우건설의 제안이 삼성물산에 비해 총 4700억원 가량, 세대당 약 6억2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계 부문에서는 8개 주동, 2열 배치로 전 세대 100% 남향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개포 일대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단지 레벨을 최대 4.5m 상향해 침수를 예방했다.

◆ 삼성 래미안 루미원… “세대당 최소 9.6억원 이익”

삼성물산은 5세대 래미안을 내세우면서 상대적으로 짧은 공사기간과 자금조달력을 강조했다. 최고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도 4세대 래미안이다.

제안한 단지명은 ‘래미안 루미원’이다. 공사비는 3.3㎡(평)당 868만9000원, 총 공사비는 6757억원 규모다. 공사기간은 43개월, 철거 포함 52개월이다.

사업 조건으로는 금융기관급인 업계 최고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사업비 전액을 시중 최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고, 조합이 제시한 계약서에 대한설계를 모두 반영, 수정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

대우건설
세대당 6.2억 절감… 비용공세 승부
CD금리 연동·무중도금 분납 조건
삼성 스카이 커뮤니티 현실성 없어

하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은 결국 자금 조달이 관건인데 개포우성7차는 필수사업비와 공사비, 이주비까지 사업비 총액이 2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며 “시중 최저금리와 낮은 공사비로 총 7357억원, 가구당 9억6000만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설계 부문에서는 10개 주동, 3열 배치로 역시 전 세대 100% 남향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 100%가 향에 따라 대모산과 양재천, 탄천 등 열린 조망이 가능토록 했다.

◆ 사업조건·상품·설계 비교 난타전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모두 경쟁사에 대한 지적과 상대 측 주장에 대한 해명에도 열을 올렸다.

삼성물산은 대우건설이 일반분양 세대를 늘리는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서울시가 확정된 정비계획도시를 무시한 허용용적률 임의확대와 임대세대 삭제로 사업진행이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며 “정비기본시설인 ‘선릉’ 광장을 임의 변경한 것과 법적 채광 기준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은 삼성물산의 지하 주차장 계획이 불가능하며, 스카이 커뮤니티 계획도 정비계획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설계에서 누락한 구조 두께를 반영하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며, 기계실 등 미계획시설로 주차대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스카이 커뮤니티 역시 용적률 초과 가능성으로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개포우성7차는 지난 1987년에 준공해 올해 38년차 아파트다. 기존 802세대 규모의 단지를 최고 35층 1122세대의 대단지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용적률이 157%로 낮은 편이라 사업성이 좋다.

단지는 지하철 3호선 대청역 5, 6번 출구와 바로 붙어있으며, 인근에 삼성서울병원과 중동중·고 등이 위치해 교육과 교통, 의료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두루 갖춰 개포동의 랜드마크 사업지로 꼽히는 곳이다.

/안상미기자 smahn1@

악성 미분양 2년여 만에 감소… 공급지표는 악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만6716가구
수도권 4396가구, 지방 2만2320가구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2년여 만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6716가구로 전월 대비 1.1%(297가구)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5월 2만7000호를 넘어서며 12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달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인데다 감소한 물량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수도권 4396가구, 지방 2만2320가구로 지방의 비중이 83.5%에 달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3734호로 전월 대비 4.4% 감소했다. 수도권 1만3939가구, 지방 4만9795가구 등이다.

올해 상반기 주택 공급 관련 지표는 일제히 나빠졌다.

상반기 주택 인허가는 13만8456호로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했다. 수도권은 22.7% 증가한 반면 지방은 28% 감소했다.

주택 착공 역시 상반기 10만3147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 줄었다. 감소폭은 수도권 8.1%, 지방 32.8%다.

상반기 분양(승인)도 전년 동기 대비 39.6%나 줄어든 6만7965호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쌓이면 서 분양 물량이 작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도 못미쳤다.

/안상미 기자

내수부진 여파 속… 조선·방산 ‘호조’, 전자·반도체 ‘위축’

업종별 2분기 실적 온도차 뚜렷
삼성, 반도체 부진 영업익 55% ↓
LG, TV 사업 부진에 전체 매출 감소
HD현대, 조선·방산 호조 성과 개선

미국 관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의 여파 속에서 주요 대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업종별로 뚜렷하게 갈리는 양상이다. 방산과 조선 업종은 호실적을 기록한 반면, 전자 업종 등은 부진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5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4조 5663억원, 영업이익 4조 676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67%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55.23% 하락했다. 반도체 부문 부진이 실적 감소를 이끌었으며,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영업이익은 4000억원으로 시장 전망치 1조원을 크게 밑돌았다.

LG전자는 2분기 매출 20조 7352억원, 영업이익 639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4.4%와 46.6% 감소했다. 사업부별로 보면, 생활가전(HS사업본부), 전장(HS사업본부), 냉난방공조(ES사업본부) 부문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TV 사업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삼성전기는 2분기 연결기준 매출 2조 7846억원, 영업이익 213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 1%



LG에너지솔루션의 미시간 법인 전경.

/LG에너지솔루션

증가했다. 전 분기 대비로는 매출 2%, 영업이익 16% 늘었다. 3분기는 국내외 거래선의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효과로 IT용 부품 및 AI 서버·네트워크,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 산업·전장용 제품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D현대는 2분기 매출 17조 2111억원, 영업이익 1조 138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소폭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29.4% 증가했다. 이는 조선 부문에서 수익성 확대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고, 방산 부문도 수출 증가와 신규 수주 확보로 성장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3% 증가한 7조 4284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153.3% 증가한 9536억원을 달성하며 HD현대 실적에 큰 기여를 했다.

포스코홀딩스는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7조 5560억원, 영업이익 6070억원, 순이익 840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은 0.68%, 영업이익은 6.87% 증가하며 실적이 개선됐다. 국내외 철강수요 부진과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 경제적 불확실성 고조 및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도 철강사업은 국내 및 해외 철강사업 모두 판매량 확대로 매출액이 증가했다. 특히 포스코의 경우 별도기준 영업이익률이 5.7%를 기록해 2023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분기실적을 기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상방산부문 실적 호조와 한화오션의 안정적인 실적에 힘입어 급성장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매출 6조 2735억원, 영업이익 8644억원을 기록하며 매출은 전년 대비 168.7%, 영업

이익은 156.3% 증가했다. 이는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과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한 것이다.

이차전지업종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2분기 매출 5조 5654억원, 영업이익 492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9.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52% 증가했다. 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 C) 금액이 주요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SK온은 2분기 매출 2조 1077억원, 영업손실 664억원을 기록했다. 북미 배터리 출하량 증가에도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으나, 통합 법인으로는 첫 분기 흑자 609억원을 달성했다.

반면 삼성SDI는 2025년 2분기에 매출 3조 1794억원, 영업손실 3978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ESS(에너지저장장치) 및 BBU(배터리백업유닛)용 매출이 증가했으나 주요 고객의 전기차 수요 둔화 영향으로 전분기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미국 관세로 인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하반기에는 한국 기업들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유안타증권 이안나 연구원은 “반도체와 조선업, 이차전지 분야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현지화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유럽시장 친환경 변압기 공급 가속화

HD현대일렉트릭
영국 ‘내셔널그리드’와 공급 협약
400kV급 12대 등 총 13대 계약

HD현대일렉트릭이 영국 전력회사와 친환경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 유럽의 친환경 변압기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HD현대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영국 전력회사 ‘내셔널그리드(National Grid)’와 400킬로볼트(kV) 급 12대

와 275킬로볼트(kV) 급 1대 등 총 13대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계약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주 금액은 1404억원으로 최종 인도 시점은 오는 2028년이다.

이번에 수주한 변압기 중 11대는 친환경 변압기다. 친환경 변압기는 절연유를 기존 원유 기반 광유(Mineral Oil) 대신 자연 분해되는 식물유 기반의 합성유(Synthetic Ester Oil)로 대체한 제품이다. 또한 화재 위험도 낮아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와 도심지역, 민

감한 산업 시설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고 친환경 수요가 커지는 만큼 제품의 가격도 높게 형성된다. HD현대일렉트릭은 동일 사양의 친환경 변압기를 미국 등에서 수주하며 품질과 기술력을 입증받아 왔다.

이번 수주는 지난 5월 스코틀랜드 전력회사와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에 이은 것으로, 두 달 만에 추가 수주에 성공하며 영국 변압기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영국은 오는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의 완전한 탈탄소화를 목표로 해상풍력과 태양광, 원전의 발전용량을 각각 50기가와트, 70기가와트, 24기가와트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변압기 등 전력 인프라 설비의 교체 및 증설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영국은 전력 설비의 주요 수요처로 손꼽히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미국 등에서 축적한 합성유 변압기 공급 경험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친환경 제품의 유럽 시장 공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바닥재, 중문, 벽장재까지 한 자리에”

LX하우시스·한샘·현대리바트
‘2025 코리아빌위크’ 참가

LX하우시스와 한샘, 현대리바트가 8월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건축박람회 ‘2025 코리아빌위크’에 참가,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선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LX하우시스는 창호·중문·바닥재·벽장재·키친등인기 제품으로 구성된 모델하우스 공간 및 팻테리어 테마존, 20여개 상담부스 등 대규모 전시관을 마련했다.

또 방문객들이 바닥재, 벽지, 인테리어필름 등 다양한 제품 샘플을 조합해보

며 나만의 인테리어 공간을 꾸밀 수 있는 ‘마감재 매칭 테이블’도 준비했다.

상담부스에선 수도권 지역 LX하우시스 지인스퀘어 전시장 소속 대리점의 인테리어 전문가 40여명이 상주하며 1대1 상담을 통해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인테리어를 추천해 준다.

LX하우시스는 이번 코리아빌드위크 기간 동안 전시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생활용품 선물세트 등 추가 사은품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중진공·소진공, 中企소상공인 추가 지원

온라인수출플랫폼 참여社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 31일 이들 기관에 따르면 중진공은 이날부터 오는 8월18일까지 ‘2025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수출 플랫폼(B2B)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B2B 수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온라인 B2B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이다. 서류평가를 통해 총 60개사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고비즈코리아 내 제품 입점 ▲기업 미니 사이트 제작 ▲검색엔진 마케팅 ▲제품 홍보영상 제작 ▲구매오퍼 사후관리 및 수출계약 지원 등 온라인수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일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중 20개사 내외의 우수기업은 ‘고비즈 인증기업’으로 선정돼 인증마크 부여, 전용 특별관 입점 등 차별화된 마케팅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김승호 기자

한화오션

협력사 체질개선 지원

‘TOP 상생협력’ 가동

한화오션이 자사의 운영 혁신 활동인 TOP(Total Operational Performance) 대상을 협력사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TOP은 한화오션이 지난 2023년부터 전사적으로 추진해 온 활동이다.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과 실행을 통해 공정 효율화·품질 향상 등의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한화오션은 TOP활동으로 현재 1000여개의 개선 과제를 발굴해 운영하면서 성과를 거두자 이를 협력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차 대상 협력사는 대림S&P, 동화엔텍, 삼녹, 영창목재산업 등이다.

한화오션은 홀로 성장하는 방식으로는 중국과의 가격 및 기술 경쟁 등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협력사에 대한 TOP 상생협력을 결정했다.

이번 TOP 상생협력은 협력사 현장의 체질 개선과 운영 시스템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각 협력사가 효율성과 품질, 납기 대응력을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TOP 상생협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협력사의 역량이 곧 한화오션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추진되는 전략적 동반성장 모델”이라고 했다.

/이승용 기자

SK일렉트릭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용인시 노상 주차장 등 설치 예정

전기차 충전업계를 선도하는 SK일렉트릭가 용인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자로 선정되며 지역 내 친환경 인프라 확산에 나선다.

SK일렉트릭은 용인시의 ‘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공동참여 민간충전사업자 모집’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용인시가 기업 신용도, 충전 서비스 운영 실적, 충전기 사양, 운영·관리 체계, 고객지원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로써 SK일렉트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용인시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SK일렉트릭은 공영 및 노상주차장 총 11개소에 급속 충전기 11기와 완속 충전기 6기를 구축하기로 했다. 장기주차에 예상되는 공영주차장에는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신속한 충전이 필요한 곳에는 최대 200kwh급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서울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자로도 선정된 바 있는 SK일렉트릭은 이번 용인시 사업까지 담당하게 되며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보유 인프라 및 서비스 경쟁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승용 기자

중견기업계, 국정기획추 정책 과제 전달

“중소 → 중견 → 대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시급”

중견련, 회복·성장 중심 정책 제언
세액공제 등 현장 체감형 대책 주문
“李 정부, 기업 활력 되살려주시길”

중견기업계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재명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중견기업 관련 ‘10대 분야, 100대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여기에는 ▲혁신 생태계 구축 ▲중견기업 육성 기반 조성 ▲투자 활력 제고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 ▲경제안보 강화 ▲노동 시장 선진화 ▲지속가능 경영 환경 조성 ▲규제 개혁 ▲기업가 정신 고취 ▲지역 경제 활성화 내용이 두루 담겼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호준 상근 부회장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성준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을 만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견련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지난 30일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왼쪽)은 국회에서 진성준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빠르게 이뤄내기 위해선 스타트업 인수합병(M&A) 활성화 기반 조성,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 생태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기업의 혁신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육

성 기반을 강화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기업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경제의 ‘허리’로서 전체 매출의 15.2%, 고용의 13.6%를 감당하는 중견기업의 양적·질적 확대가 경제 회복과 재도약의 계기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면서 “중견기업 정책 금융 지원 확대, 신용보증기금 중견기업 전용 계정 신설, 중견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 확대 등 중견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지원 단절과 규제 확대로 스스로 성장을 철회하는 피터팬증후군을 일소할 정책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수출의 18.7%를 감당하는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존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출 시장 및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는 등 ‘실용’에 입각한

적극적인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주식시장 활성화, 내수 회복 등 정부 출범 이후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여전히 애로를 호소하는 중견기업 현장의 체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과감한 대책도 주문했다.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선 경제·산업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균형 잡힌 해법, 과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면서 “경제 위기를 돌파해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적극 반영해 민생의 터전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LG CNS

‘애저 AI’ 기술역량 입증

AX(인공지능 전문 기업 LG CNS(대표이사 사장 현신균·사진)는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애저(Azure) 기반



인공지능(AI) 전문기술 역량’ 인증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마이크로소프트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기반 AI 애플리케이션 설계·구축·운영 사업 성과와 기술력에 대한 제3자 감사를 통과하고, 고객 성공 사례 등의 기준을 충족한 파트너만이 획득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자격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3사(마이크로소프트, AWS, 구글 클라우드)의 생생형 AI 전문 인증을 모두 보유한 LG CNS는제조·금융·공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애저 오픈AI ▲애저 AI 서비스 ▲애저 앱 서비스 등 최신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AI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1@

SK AX

탄소 데이터 지원 서비스

SK AX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 규제 본격화에 대비해 한국 제조 기업을 위한 ‘탄소 데이터 대응 통합 지원 서비스’를 내놴했다고 31일 밝혔다.

SK AX는 민감한 정보 보호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합성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탄소 데이터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SK AX는 검증된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EU 규제에 대응하고, 한국형 데이터 생태계와도 연계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다.

SK AX는 ▲제품 단위 DPP 데이터 설계 ▲민감 정보 보호 체계 ▲국제 표준 정합성 확보 ▲이력 추적 솔루션 및 시스템 등 전사적 ESG 데이터 전략 수립부터 시스템 개발까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KT

‘기가 오피스 N’ 출시

KT는 중소기업의 IT 인프라 환경을 통합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KT 기가 오피스 N’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가 오피스 N’은 최대 10Gbps의 기업용 고속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KT의 기존 상품으로, 이번에 ‘기가 오피스 N’으로 고도화되며 서비스형 네트워크(NaaS) 형태로 전환됐다.

기가 오피스 N의 핵심은 회선 속도를 일 단위로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용 기업은 업무 상황이나 트래픽 수요에 따라 200Mbps부터 2Gbps까지 원하는 속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적 수요 증가 시에도 별도 계약 변경 없이 포털에서 실시간 조절이 가능하다.

KT는 오는 9월부터 회선 대역폭 조정,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XAI’ 미래 먹거리 부상… 중소기업 육성해야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2034년 글로벌 시장 65조 전망
“신규정책 사전영향 진단 필요”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XAI)’가 중소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 육성 등이 절실하다는 조언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31일 펴낸 ‘KOSI 이슈나포커스-설명 가능한 AI의 부상,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XAI를 중소기업의 유망한 기술, 비즈니스 분야로 인식하고 XAI 이행 기반 강화와 전문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XAI를 활용한 중소기업 위기관리 모형 고도화, 신규 정책에 대한 사전 영향 진단 필요성 등도 제언했다.

‘XAI’는 AI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노

〈XAI 시장 규모 예측〉

연도	시장 규모
2024	910
2025	1,351
2026	2,005
2027	2,975
2028	4,415
2029	6,552
2030	9,724
2031	14,430
2032	21,414
2033	31,779
2034	47,160

단위:백만달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력이자 사용자가 AI 시스템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방법을 말한다.

중기연구원은 시장 자료를 인용해 XAI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34년까지 약 6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기만 부연구위원은 “국내·외에서 AI 활용에 따른 안전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원칙 중 하나로 설명 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분야에서 AI 활용이 확대되면 서 이에 따른 의사결정 투명성, 설명 가능성에 대한 관심,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XAI에 대한 논의와 적용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외의 경우 제조, 금융과 더불어 도소매, 무역 부문 등 여러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XAI에 기반을 둔 솔루션을 개발·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 시스템의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고객사의 만족도 향상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도 정부 운영

과 공공 정책 혁신을 위해 XAI를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XAI에 대한 지속적 발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세계시장 규모의 빠른 확대가 전망되는 만큼 ▲전문기업 육성 ▲중소기업 위기관리모형 고도화 ▲이행 기반 강화 ▲신규 정책의 잠재적 영향 진단 툴 확보 등의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기업을 육성하기위해선 특히 기술력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동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선도 기업 발굴 및 선별적 지원’ 방식이 적절하다”며 “아울러 XAI를 적용해 신규 정책 설계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가능할 수 있는 진단 도구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인 정부, 기업 등에게 정책 수립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SNS 중독’ 피해 급증… 플랫폼업계, 보호기능 등 대응책 강화

청소년 자살행동 위험 최대 2.4배
AI 기반 연령 판별기능 등 도입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이 자살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IT 플랫폼 업계가 청소년 보호 대책 강화에 나섰다. 디지털 중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의 책임 이행과 정부 차원의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31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SNS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IT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미국 웨일코넬 의대와 캘리포

니아대 공동 연구팀은 국제 의학 학술지 ‘자마(JAMA)’에 발표한 논문에서 “SNS 사용이 중독 수준에 이르거나 급격히 증가했다가 감소한 청소년의 자살 행동 위험이 최대 2.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중독에 대한 위기의식은 뚜렷하다. 사단법인 중독포럼이 전국 10대~50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가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중독 문제를 ‘심각하다’고 평가했으며, 이 중에서도 SNS 중독에 대한 우려는 91.2%로 가장 높았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주요 플랫폼 기

업들도 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틱톡은 이달부터 보호자가 자녀의 콘텐츠 게시, 다운로드 설정, 팔로우 목록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자녀가 부적절한 콘텐츠를 신고하면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이 전송되는 시스템도 적용됐다.

유튜브는 AI 기반의 연령 판별 기능을 미국에 시범 도입했다. 사용자 검색 기록, 시청 콘텐츠, 이용 시간 등을 종합 분석해 18세 미만으로 판단되면 맞춤형 광고를 차단하고, 휴식 알림 및 부적절 콘텐츠 차단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메타는 지난 4월부터 인공지능을 활

용해 인스타그램 사용자 중 허위 나이를 입력한 10대 계정을 식별하고, 자동으로 보호 기능이 적용된 ‘틴 계정’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AI는 생일 게시물, 이용 패턴, 신고 내역 등을 종합해 성인으로 가장한 청소년 계정을 식별하며, 틴 계정으로 전환 시에는 낮은 사람과의 메시지 차단, 부적절 콘텐츠 제한, 부모 동의 등의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청소년의 SNS 중독이 심라·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과 정부의 대응 역시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규제와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선 기업의 자발적 조치뿐 아니라 보다 강력한 공공 정책과 사회적 논의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서현 기자 seoh@



헛터그룹에서는 누구나 성실하면, 억대 연봉을 이룰 수 있습니다.

헛터그룹의 성장을 주도하실 프리랜서 영업지부장님을 모십니다.

헛터그룹 소개

풍요롭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30년 전통의 "헛터그룹"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한홍삼(주) _ 건강백화점 사업부문

1000여개의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홍삼&건강상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매장 사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주)헛터 _ 수출 사업부문

홍삼&건강상품을 아시아,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CIS의 36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 (주)헛터방송 _ 브레인TV 사업부문

3,600만여 가구의 가시청가구를 확보하고, 350여개의 TV채널과 경쟁하여, 당당히 50위를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장기, 체스, 보드게임 전문 TV방송채널으로서, 강력한 마케팅도구로서 최고의 가성비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 (주)헛터라이프 _ 이커머스 사업부문

7만여종의 취급상품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자체적으로 종합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20여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50여개 파트너사에 복지쇼핑몰의 구축과 IT개발관리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삼장홍삼(주) _ 한삼인 유통 사업부문

농협홍삼 한삼인의 발효홍삼제품의 국내와 해외 유통의 독점 판매원으로서, 2009년부터 한삼인 발효홍삼제품의 국내외 유통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요강

모집부문	주요업무	자격요건	인원
영업지부장 (위촉직/프리랜서)	"헛터그룹에서 할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소개만 시켜주십시오. 사업설명과 계약은 본사가 책임집니다." ◎ 건강상품의 창업후보자 발굴 ◎ 복지쇼핑몰 개설 후보자 발굴 ◎ TV 광고스폰서 발굴 ◎ 건강 상품 판매, 도소매업자 발굴 등	당신의 열정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 경력, 학력 무관	00명

급여조건

100% 성과급 (개척수당+매출액 비례 성과급)

전형절차

서류접수 → 면접 → 활동시작

연락처 : 010-9954-1067/02-2163-004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실적·정책수혜 맞물리며 황제주 등극

장중 103만5000원까지 치솟아
방산·선박 호조… 우주사업까지 확장
李 대통령 ‘방산강국’ 정책도 힘보태
주주가치 제고방안도 적극 제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31일 장중 100만원을 찍었다. 작년 같은 시기 28만8000원이었는데, 1년 만에 주가가 세배 넘게 뛰었다. 국내 유가증권에서 1주당 가격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보다 높은 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양식품, 태광산업, 효성중공업 뿐이다. 가파른 실적 성장과 이재명(국민주권) 정부의 방산 육성 정책까지 맞물리며 이른바 ‘황제주’ 자리를 꿰찬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 대비 1.94% 오른 99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103만5000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썼다.

시장에서는 실적 성장과 주주환원 정책, 정책 수혜 기대감이 투자자를 불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지난 2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IDEX) 2025에서 전시한 K9 자주포. /한화

모았다는 평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방산 및 선박 부문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8.7% 증가한 6조2735억원, 영업이익은 156.3% 급증한 86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증권가 평균 예상치를 약 20% 웃도는 수준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엔진과 위성, 발사체, 지상무기 등 전 부문에서 고른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 중이며, 방산 전문 계열사인 한화시스템과의 시너지, 누리호·고체 발사체 등 우주 사업까지 성장성이 확장되고 있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유럽 지역 재무장 수요 증가에 따라 K9 자주포와 천무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도 주가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K-방산을 글로벌 4대 방산강국으로 만들겠다”며 대통령 직속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 R&D 세액감면, 소재·부품 국산화, 차세대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주 환원에도 적극적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공시를 통해 향후 4년간 11조원 규모의 해외 투자, 연간 3500원 이상 현금배당, 주주가치 제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1956억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경쟁사에 비해 주가도 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026년 예상 주가수익 비율(PER)은 19배 수준으로, 유럽 방산업체 평균(33배)이나 국내 경쟁사 평균(27배)보다 낮다.

시장 전문가들은 실적 개선, 정책 수혜, 주주환원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목표주가 컨센서스는 104만 6824원이다. 목표주가 중 가장 높은 수치는 한국투자증권이 제시한 130만원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독일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방 예산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에서 5%로 늘리기로 했다”며 “이 같은 흐름은 한국 업체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럽 재무장으로 인한 글로벌 무기 공급 부족 심화로 중동, 인도 등 국가들이 ‘K방산’에 손을 내밀 것으로 예상했다. BoA는 이를 근거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목표주가를 기존 95만원에서 113만원으로 상향했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동과 유럽, 동남아시아에서 다수의 수출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만큼 해외 매출 인식이 이어지면서 2025년과 2026년 지상 방산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24%, 18.6%씩 증가할 것”이라며 방산 업종내 최선호주로 제시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지난해 연금저축펀드 수익률 7% 돌파

금감원 ‘지난해 연금저축 운용현황’
전체 연간수익률 3.7%… 0.9% ↓
연금저축펀드 적립액 10.8兆 늘어
고소득자일수록 가입률 높아

작년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은 7%를 넘었다. 펀드 적립액은 11조원 이상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발표한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에서 작년 전체 연금저축 연간수익률이 전년 4.6% 대비 0.9% 하락해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품별로는 연금저축보험 2.6%, 연금저축신탁 5.6%, 연금저축펀드 7.6% 순이었다.

상품별 수익률 차이는 상품 구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후 각 보험사가 제시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구조인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직접 선택한 펀드로 운용돼 주식시장 수익률과 연동되는 특징이 있다.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은 퇴직연금 IRP(5.9%)보다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실적배당 상품에 적립금을 100%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와 다르게 IRP는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적립금 총액은 17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8000억원(6.4%) 증가했다.

상품별로 보면 연금저축보험 115조 5000억원, 연금저축신탁 14조4000억원, 연금저축공제보험 8조원 순으로, 연금저축펀드는 2년 연속 30% 수준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작년 연금저축펀드의 적립액 증가액은 11조1000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을 넘어섰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1000억원 증가했고, 연금저축신탁은 적립금이 7000억원 감소했다.

판매사별로는 보험사 115조6000억원, 금융투자회사 35조9000억원, 은행 19조1000억원, 공제기관 8조원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회사가 전년 대비 10조9000억원(43.7%) 증가한 반면, 보험사는 2000억원(0.1%) 증가에 그쳤고 은행은

6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말 기준 연금저축가입자는 764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특히 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연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20세 미만 가입자가 전년 대비 66%(8만8000명)나 늘어났다.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연 근로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가입률은 1.5%에 불과한 한편, 4000만~6000만원 이하는 10.1%, 6000만~8000만원 이하는 22.6%, 8000만~1억원 이하는 34.6%, 1억원 초과는 50.7%로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았다.

연금저축 계약당 평균 연금 수령액은 연 295만원으로 전년(연 297만원)보다 2만원 줄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 낮은 수수료 비용, 한도 없는 자산운용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므로 윤택한 노후생활을 위해 이를 활용한 적극적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찍 시작하고, 많이 저축하고, 오랫동안 나눠 받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운용 ‘머니마켓액티브’, 순자산 7兆 돌파

올해 자금 유입 3.1兆… 증가폭 1위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최대 규모의 머니마켓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 머니마켓액티브’가 순자산 7조원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KODEX 머니마켓액티브에는 올해 3조1214억원 넘는 자금이 유입되며 연초 이후 국내 ETF 중 순자산 증가폭이 가장 컸다.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개인 자금도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상장 이후 누적 개인 순매수 금액은 4264억원에 달해 국내 파킹형 ETF 중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상품은 초단기 채권과 기업어음

(CP) 등 신용도가 높은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MMF)의 운용 방식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일반 MMF와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가지면서도 운용 규제가 비교적 덜해 더 유연한 자산 배분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삼성자산운용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높은 신용등급의 자산 위주로 구성해 안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2.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KODEX 머니마켓액티브는 연환산 수익률 3.43%를 기록하며 일반 MMF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IBK투자증권, 환경·에너지 시장 활성화 나서

NH선물과 비즈니스 활성화 협력

IBK투자증권은 지난 30일 NH선물과 ‘환경·에너지 분야의 지속가능한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두 회사는 ▲기업의 환경·에너지 상품 투자 및 헤지구조 자문 ▲기업의 환경·에너지 사업 관련 기술자문 및 투자주선 등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환경·에너지 상품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적의 솔루션으로 헤지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IBK투자증권은 유럽연합(EU) 탄소 배출권을 포함한 국내외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중개 거래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영역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왔다. NH선물은 파생상품 전문 중개회사로, 고객별 맞춤 투자 및 헤지 솔루션을 제공하며 저유황 선박유 등



30일 서울 여의도 IBK투자증권 본사에서 박태동 IBK투자증권 S&T부장(오른쪽)과 이수석 NH선물 부사장이 업무협약 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투자증권

친환경 원자재 기반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박태동 IBK투자증권 S&T부문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에너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석 NH선물 부사장은 “전략적 협력을 통해 양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원관희 기자

‘넥스트 차이나’ 실종… 인도증시 고평가 부담 지속

최근 한 달간 수익률 -1.44%

‘넥스트 차이나’로 불리며 주목받던 인도펀드가 주요국 펀드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3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인도펀드 수익률은 -1.44%로 주요국 펀드 중 유일하게 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베트남(14.28%), 중

국(7.86%), 북미(6.26%), 일본(3.82%) 등 주요 국가 펀드는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수익률 부진으로 인해 자금 유출도 이어졌다. 인도펀드 설정액은 전날 기준 1조7309억원으로, 연초 이후 2011억원이 빠져나갔다.

국가별 펀드 중 설정액 감소 폭이 가장 크다. 같은 기간 중국주식형 펀드는 4021억원 늘었다.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도 가속화했

다. 로이터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해외 투자자들은 인도 주식을 약 20억 달러어치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 증시에 대한 고평가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증시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 비율(PER)은 약 22배 수준으로 신흥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 이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에 더해, 미국의 대외 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원관희 기자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들어선다

태양광 등 AI 실시간 제어·관리

산업부,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구성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확대 적용
재생에너지 중심 양방향 흐름 구현

정부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전력망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전력 신산업을 발굴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남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AI(인공지능)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독립 전력망) 기술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재생에너지 확대로 세계 각국이 전력망 투자에 과감히 나서는데, 우리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으로 전력망 전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차세대 전력망 구축은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산형 자원을 AI 기술로 실시간 제어·관리하는 지능형 배전망을 의미한다.

기존 발전-송전-배전의 ‘단방향’ 계통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의 ‘양방향’ 전력 흐름을 구현해 전력망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게 핵심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의 첫 무대는 전남이다. 우선 전남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전기사업법상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지역 발전사와 수요기업 간 전력 직거래도 허용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에는 태양광과 ESS를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고, 잉여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및 수소환원제철 실증도 병행한다. 일부 산업단지에서는 폐열 회수와 태양광 열변환 기술도 시험할 예정이다.

향후 마을 단위로 주민참여형 마이크로그리드가 확산되면, 에너지취약 지역을 RE100 마을로 전환하는 모델

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남 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GIST, 전남대 등과 연계한 ‘K-Grid 인재·창업 밸리’를 조성한다. 에너지 기업,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함께 입주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 기반 에너지 플랫폼과 가상 발전소(VPP)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할 계획이다.

기술개발도 병행한다. 장주기 ESS, 지능형 전력망 운영시스템, 마이크로그리드 통합기술 등 차세대 전력망 핵심 기술 R&D사업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구축된 트랙레코드는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호헌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구성, 기재부·국토부·국방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세부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출력제어와 접속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송전망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마이크로그리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지역 전력시장 구조와 규제 특례, 다양한 수요처 실증이 동반되는 ‘통합 에너지 시스템 전환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한전, ‘APC 정상회의’ 전력공급 만전

6000명 인력 투입… 긴급상황 대응

한국전력공사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6000여 명의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100억원 규모의 전력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전은 지난 30일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청에서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전력인프라 확충 및 무결점 전력공급을 위한 4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회의장 및 주요 시설 전력공급 ▲행사 운영 물품지원 ▲비상상황 대응 협조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한전은 협력사와 함께 행사 전후로 총 6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긴급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미 한전은 지난달 9일 ‘2025 APEC 전력확보 추진 대책본부’를 발족하고, 본사 6개 부서와 대구본부, 경북도 준비지원단이 연계하는 현장 중심 협업체계를 가동 중이다.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무결점 전력공급에 나서자는



정치교 한국전력공사 안전&영업배전 부서장이 전력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한전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 10월부터 총 100억원을 투입해 행사장 전력공급을 위한 설비 보강과 송배전 인프라 확충 공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80%다. 한전은 공사를 8월 중 마무리하고 9월부터는 종합상황실을 경주와 본사에 설치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정치교 한전 안전&영업배전부서장은 공사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20년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가스안전공, 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

기술인력 투입… 성금·물품 지원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7월 중순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 기술인력을 투입해 가스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수재 의연금품을 전달하는 등 복구 지원에 나섰다.

가스안전공사는 31일 경남 산청, 경기 가평, 전남 담양, 충남 서산 등 전국 주요 피해 지역에 가스설비 피해 복구를 위해 기술인력을 급파하고, 총 1400만 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특별성금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박경국 사장은 피해 직후인 지난 7월 22일 경남 산청군을 직접 방문해 500만 원 상당의 성금을 전달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후 공사 임원진이 피해현장을 잇달아 찾아 지원에 나섰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담장 붕괴·도로유실 등으로 가스설비 피해가 발생한 총 10개소에 대한 긴급 복구를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난 22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의 현장을 찾아 가스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1051개소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민원 접수·처리 및 임시 사용조치 등을 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박 사장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시름에 잠긴 이재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재민 여러분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시설 복구 지원에도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농축산식품 산업 분류체계 정비

환경·돌봄 중심 업종 신규 분류
스마트팜·그린 바이오 등 포함

정부가 농업 분야의 융복합 산업 확산 흐름을 반영해, 농축산식품 산업 분류체계를 5년 만에 대폭 손질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31일 스마트팜, 영농형 태양광, 반려동물 산업, 그린바이오 등이 통계상 산업분류에 정식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0년 도입된 특수분류 이후 5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그동안 농축산식품 산업은 작물 재배, 축산, 식품제조, 음식점업 등에 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항목으로 산업 구조를 파악해 왔다. 하지만 스마트농업, 식품 유통 플랫폼, 바이오

연료 등 융복합 산업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통계 및 정책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농축산식품의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산업분류 체계를 새롭게 정비했다. 우선 스마트팜 기기·로봇·무인항공기 제조, 온실 및 수직농장 관련 기자재, 식품용 미생물, 동식물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신성장 산업이 분류체계에 신설됐다. 반려동물 장묘, 보호, 용품 산업도 독립 코드로 추가됐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치유농업, 농업 인력 중개, 폐비닐 수거 등 환경 및 돌봄 중심의 농업 정책을 반영한 업종도 새롭게 분류됐다.

기존에 실질적인 산업활동임에도 누락돼 온 온라인 농축산물 유통 전문업체, 농식품 물류기기 임대업,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업 등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맞춰 정비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통계 간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책 효과 분석과 산업 규모 측정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정은 농축산식품산업과 신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 생태계의 흐름을 체계로 파악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서울시교육청, 다자녀 가정 교육부담 덜다

중학교 입학 배정 우선권 확대 적용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다자녀 가정의 중학교 입학 배정 우선권을 확대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첫째 자녀도 근거리 중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이상 자녀는 형제·자매가 졸업한 중학교에도 동일 학교 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첫째

자녀도 학교군 내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에 우선 배정 ▲둘째 이상 자녀는 형제·자매가 졸업한 중학교도 동일 학교 배정 신청 가능 ▲단성학교(남중·여중), 거주지 이전 등 특수한 경우에 대비한 예외 기준 마련 등의 개선안이 적용된다.

특히 단성학교의 경우, 예를 들어 오빠가 남중을 졸업했다면 여동생은 거주지 기준 가장 가까운 여중 또는 남녀공학 중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

고, 이사로 인해 기존 학교군과 달라진 경우에도 새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에 우선 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학 거리와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형제·자매 간 동일 학교 생활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제도 개선은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라며 “향후 고등학교 배정 등 다른 교육 단계로도 이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

고려대, 식물 전기생성 원리 규명

고려대학교 연구팀이 별도의 가공 없이도 나뭇잎에서 전기를 생성할 수 있는 원리를 밝혔다.

고려대는 윤호재 교수 연구팀이 식물이 고성능 에너지 변환 소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 인공 소재보다 뛰어난 열전 성능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식물 조직 내 수분과 이온이 온도 차이에 따라 이동하면서 전압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온 제벡 효과(ionic Seebeck effect)’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특히, 잎을 부분적으로 건조할 경우, 표면에 전기적 유전체층이 형성되어 이 효과가 획기적으로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성과는 재료과학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지 ‘Advanced Materials’ 온라인에 7월 26일 게재됐다.

/이현진 기자

단순 장보기 넘어 체험형 휴식 제공 대형마트, ‘몰캉스’로 공간 탈바꿈

〈몰+바캉스〉

오프라인 유통업계 매출 역성장
대형마트 -1.1%… 감소폭 가장 커
식료품 중심 온라인 시장 성장세
이마트, ‘스타필드 마켓’ 리뉴얼
롯데마트, 식료품 전문·체류 결합

지난 상반기 기준 오프라인 유통업계 매출이 5년 만에 역성장한 가운데, 대형마트 매출이 백화점·편의점에 비해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을 중심으로 소비층이 온라인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전반적인 오프라인 유통가 경쟁력 하락에 대형마트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오프라인 유통업의 매출 증감률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0.1% 줄었다.

그중 대형마트 매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지난 상반기 전년 대비 백화점 매출 증감률은 0.5%, 편의점은 -0.5%였던 반면, 대형마트는 -1.1%로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대형마트의 성장 둔화는 지난해부터 지속돼 왔다. 전년 동기 대비 대형마트 매출 증감률은 지난해 2분기 -2.6%, 3분기 -2.9%, 4분기 -1.7%에 이어 올해 1분기 -0.4%, 2분기 -1.9%를 기록하며 5분기 연속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대형마트 성장 정체 배경으로 식료품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시장 성장세가 지목된다. 올해 상반기 대형마트 식품 부문 매출 증감률을 살펴보면, 1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19.1%), 2월(-19.7%), 3월(3.4%), 4월(-0.8%), 5월(1.6%), 6월(0.5%)로 집계됐다.

반면, 온라인 유통가에서는 식품 매출 증감률이 1월(19.6%), 2월(14.9%), 3월(19.4%), 4월(21.3%), 5월(18.2%), 6월(24.1%) 지속해서 증가했다. 식품 비중이 대략 70%에 달하는 대형마트와 달리, 식품 비중이 약 30%에 불과한 온라인 유통업계에서 식품 매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업체는 몰캉스(몰+바캉스) 공간 혁신 전략을 내세우며 고객 잡기에 나섰다. 단순 장보기 공간을 넘어 체험형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이마트는 18년 만에 이마트 동탄점을 리뉴얼을 단행하고, 이마트 동탄점을 ‘스타필드 마켓’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스타필드 마켓은 지난해부터 이마트가 새롭게 선보인 리테일 공간 혁신 모델이다.

특히, 기존 이마트 매장 면적을 약 26% 축소하고, 시그니처 문화공간인 ‘북 그라운드’ 공간을 넓혔다. 이 외에도 ‘키즈 그라운드’ 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3040을 중심으로 한 가족 단위를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 역시 최근 식료품 전문성과 체류형 콘텐츠가 결합된 ‘그랑그로 서리 구리점’을 새롭게 오픈했다. 매장의 약 90%를 식료품으로 구성하는 한편, ‘토이저러스’, ‘뽀로로’ 등 키즈 브랜드 공간을 흡인속 형태로 구성해 가족 단위 고객 확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도 백화점과 같이 체류형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며 “공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 장보기 공간을 넘어 아닌 3040 가족 단위 고객에게 즐거움과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넥스트엔바이오

오가노이드 연구 본격화

콜마홀딩스 관계기업 넥스트엔바이오가 차세대 생명공학 분야인 ‘오가노이드’ 연구개발에 본격 나선다.

31일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넥스트엔바이오는 지난 30일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산하 싱가포르 암과학연구소와 ‘오가노이드 공동연구소 개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넥스트엔바이오는 아시아 암 환자로부터 유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오가노이드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중국계, 인도계, 말레이시아계 등 다양한 아시아 암 환자에서 신약개발, 치료반응 예측 등을 진행한다. 특히 동물실험을 대체할 새로운 평가 플랫폼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넥스트엔바이오는 오가노이드 전문 연구인력을 싱가포르 현지에 투입해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정밀의료 평가 기술을 공동연구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인 야쇼크 벤키타라만 교수를 비롯해 다수의 암 전문 임상의 및 연구진이 참여한다.

/이청하 기자

신세계사이먼, 여름휴가 맞아 ‘썸머 나잇 힐링 페스타’ 열어

오늘부터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서
쇼핑·여가·미식·체험 야외 행사

신세계사이먼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과 여주 프리미엄 빌리지에서 ‘썸머 나잇 힐링 페스타’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썸머 나잇 힐링 페스타는 쇼핑과 여가, 미식과 체험을 결합한 복합 야외 페스티벌이다.

먼저 오는 2일과 9일에는 오후 8시 30분에 여주 프리미엄 빌리지에서 불꽃놀이가 진행된다. 불꽃놀이 행사에 앞서 오후 6시와 8시에는 사전 공연을 진행한다.

야시장 분위기의 푸드 페스티벌도 마련됐다.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이스트 광장에서는 행사 기간 중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밴드제리스, 고피자, 명랑핫도그, 자갈치오지매, 부산맥주 등 인기 식음료(F&B)를 선보인다. 여주 프리미엄 빌리지에서는 톰브로이의 푸



신세계사이먼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이스트(EAST) 플라마켓 전경 사진. /신세계사이먼

드트럭과 수제맥주도 만나볼 수 있다.

지역 관광과 연계한 ‘썸머바캉스 패키지’ 이벤트도 진행한다. 여주시 남한강출렁다리, 금은모래캠핑장, 루덴시아와 이천 테르메덴, 덕평자연휴게소 등 제휴처를 방문한 뒤 아울렛 안내센터에서 인증하면 놀이기구 탑승권, 음료 이용권 등 선물을 증정한다.

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무더위로 지친 여름, 아울렛에서 시원한 힐링을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롭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나라셀라, ‘몬테스’ 누적판매 1700만병 돌파

한 달간 ‘몬테스 알파’ 시리즈
3만1900원 특별가 행사 진행

국내 와인 유통업계의 1호 상장사인 나라셀라가대표 수입 브랜드 ‘몬테스’의 누적 판매 1700만 병 돌파 기념으로 ‘고객 감사제’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판매 기록은 와인 병을 세로로 쌓았을 경우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산의 약 576배 높이에 달하는 규모다. 1998년 국내에 처음 소개된 ‘몬테스’는 2012년 500만병, 2019년 1000만병을 넘어서는 데 이어 이번 1700만 병 돌파로 또 한 번의 기록을 세웠다.

‘몬테스’는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품질로 입문자부터 애호가까지 폭넓은 소비층의 지지를 받으며 지난 28년 동안 국내 와인 시장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현재는 백화점, 편의점, 레스토랑, 호텔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대표적인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로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그 결과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에서 와인 부문 1위로 선정되었으며, 가장 신뢰하고 마실 수 있는 와인으로 소



몬테스.

/나라셀라

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라셀라는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8월 1일부터 31일까지(한 달간) 주요 백화점(현대, 신세계, 롯데, 갤러리아), 이마트24, GS더프레시 등에서 ‘몬테스 알파’ 시리즈를 3만1900원 특별가로 선보이는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8월 중에는 와인 애호가들을 위한 한정판 ‘몬테스 올드 빈티지’ 출시도 예정돼 있어 기대를 모은다.

나라셀라 관계자는 “1700만 병 판매라는 뜻깊은 성과는 ‘몬테스’를 향한 고객들의 꾸준한 신뢰와 사랑 덕분”이라며, “이번 ‘고객 감사제’를 통해 ‘몬테스’의 진정한 매력을 더욱 깊이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연구·생산 전문가 합류

배은주 박사, 이용석 생산본부장 영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국제 수준의 연구경험을 가진 배은주 연구소장과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 분야 전문가인 이용석 생산본부장을 신규 영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중장기 파이프라인 강화와 글로벌 임상·생산 역량 확대를 위한 전략적 조치다.

배은주 박사는 바이오융합 기술 개발 전략을 총괄한다.

배 박사는 신약개발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UC 샌디에이고에서는 박사후연구원으로 연구 역량을 쌓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만, 당뇨병, 지방간질환 등 대사질환이며 최근에는 분자약리학적 대사조절 및 조직 재생 관련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용석 생산본부장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맡는다.

이 생산본부장은 공정개발 및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전문가로,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생물화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GC녹십자에서 20년 이상 바이오의약품 개발부터 상업 생산까지 전 주기를 주도한 경험을 갖췄다. 셀랩메드에서는 GMP 관련 시설 구축, 규제기관 승인, 품목허가 등 조직 전반의 업무를 다뤘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두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협업해 혁신 연구 역량과 글로벌 생산 경쟁력을 더욱 끌어 올릴 수 있게 됐다”며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에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기업 영향력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청하 기자 mlee236@

CU, 닌텐도 ‘피크민’ IP 협업 상품 선보

편의점 업계 최초 닌텐도 IP 제휴

CU가 국내 편의점 업계 최초로 닌텐도와 지식재산권(IP) 제휴를 맺고 인기 게임 캐릭터 ‘피크민’ 상품을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피크민은 미지의 행성을 무대로 하는 닌텐도 스위치 게임 ‘피크민 4’의 캐릭터다. 모뎀 캐릭터인 피크민 모종을 발견해 새로 심거나, 결을 수를 모아 꽃을 피우는 방식의 게임이다.

CU는 피크민의 세계관을 활용한 협업 제품과 각종 이벤트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CU는 피크민 블루 게임 이용자

를 위해 특별존을 마련했다.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전국 CU 매장에 방문한 뒤, 피크민 특별존을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특별한 디자인의 ‘피크민 4 우주선 데코 피크민’ 모종을 획득할 수 있다.

피크민 IP 협업 상품 5종도 출시한다. 대표적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과일을 모아 온다는 설정을 바탕으로 상큼한 과일 맛을 구현한 ‘피크민 요거트 마카롱’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커스터드도넛’, ‘꽃모양 스낵’ 등 상품도 마련됐다.

BGF리테일 이은관 전략 상품기획자(MD)팀장은 “앞으로도 CU는 편의점 주요 소비층의 관심이 높은 인기 콘텐츠와 연계한 이색 마케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신세계계, 中 우상·왕푸징과 제휴 논의

신세계면세점이 서울에 있는 자사 명동점에서 중국 유통기업 우상그룹과 왕푸징그룹 주요 경영진과 한국 상품 판로 확대 및 제휴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에 따르면, 하반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으로 중국 관광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관광객 유치 확대와 마케팅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신세계면세점



HDC현산, 중북맞이 흑서기 사랑나눔

HDC현대산업개발은 중북을 맞아 광주 서구 장애인 가구를 위해 식료품을 전달하는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달 광주 서구 장애인 가구에 전달할 식료품과 선풍기를 지원하고 A1추진단 소속 임직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배식, 도시락 배달, 청소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우리은행, 광화문에 기업금융 점포 개점

우리은행은 31일서울 소재 기업고객을 위한 금융 자원에 특화한 '광화문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 '광화문BIZ프라임센터'는 지난 2023년 7월 출범한 우리은행의 기업특화 채널 'BIZ프라임센터'의 13번째 지점이다. 서울 3대 주요 업무지구와 더불어 IT산업 중심지로 부상한 성수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중앙대·美 조지아대, 교류협력 체계 구축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와 미국을 대표하는 연구 중심대학인 조지아대학(University of Georgia, UGA)이 공동연구, 학생교류를 포괄하는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박상규 총장은 지난 25일 미국 조지아대학을 방문해 벤자민 에이어스(Benjamin Ayers) 부총장을 만나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중앙대학교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기총량관리 사업장 선정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시행한 '제2차 대기총량관리 자발적 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한난 용인지사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 1차 평가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이후 이뤄낸 쾌거다. '대기 총량관리 자발적 협약'이란 한강청이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통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협약을 맺는 제도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LG전자, OLED 기술로 현대미술에 혁신 더하다

국립현대미술관과 협업 첫 전시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진행
주제는 '생명과 욕망, 끊임없는 순환'

LG전자가 국립현대미술관(MMC A)과 함께 창의적인 현대미술과 LG OLED의 독보적 화질이 조화된 대규모 작품을 전시하고,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차별화된 예술 경험을 선보인다.

LG전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2026년 2월 1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의 '서울박스'에서 국립현대미술관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MMCA X LG OLED 시리즈' 첫 전시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의 '서울박스'에 전시된 미디어 아티스트 추수의 대형 설치 미술 '아가몬 대백과: 외부 유출본'.

/LG전자

이번 전시는 '생명과 욕망, 끊임없는 순환'이라는 주제를 다룬 대형 설치 미술 '아가몬 대백과: 외부 유출본'으로 미디어 아티스트 추수 작가와 국립현

대미술관, LG전자의 첨단 OLED 기술이 함께 빚어낸 결과물이다.

특히 LG전자의 55형 OLED 스크린 총 88대로 만든 두 개의 초대형 스크린

충남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3억 기탁

HD현대오일뱅크

수해가구 생활필수품 등 지원

HD현대오일뱅크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산 등 충남 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 3억 원을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 주관 아래 HD현대1%나눔재단이 후원한 이번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본 가구의 생활필수품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HD현대오일뱅크는 서산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으로서 수해 피해 직후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서산시에 성금 1억 원을 기탁한 바 있다.

이외에도 관내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토크백(포대자루) 2500여 개를 지원하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60여 명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지난 30일 충남도청에서 기부식 후 정임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김태홍 지사 성우 중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왼쪽부터)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역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현대百, 글로벌 환경 평가 '최고 등급'

2024 SEA 평가서 'A-리스트' 선정

현대백화점이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인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가 주관하는 '2024 SEA 평가'에서 업계 최초로 최고 등급을 받아 'A-리스트'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SEA 평가는 CDP가 공급망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환경 경영 거버넌스 및 경영 전략·리스크 관리 체계 등 총 5가지 평가 영역으로 구성됐다.

유통업계 중 'A-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자사가 유일하다는 게 현대백화점 측 설명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와 기회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개한 점이 주효했다.

이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순환 프로세스 구축 등 유통업에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탄소중립 실천 활동과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평가에는 전 세계 약 2만 300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이 중 1395개 기업이 'A-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며 국내 기업은 64개 사가 포함됐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인사

◆한국원자력연구원 ◇단장 ▲차세대연구로사업단장 서경우 ◇부장 ▲임자범이용연구부장 정명환 ◇실·팀장 ▲차세대연구로기술관리실장 김민국 ▲연구평가팀장 박지연

부음

▲배재호씨 별세, 박희현(현대해상 장기계약관리파트장)씨 시부상 = 30일, 분당차병원 장례식장 특실(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발인 8월 1일 오전 7시, 031-780-6170.

서울시, AI와 스마트시티 미래 열다

스마트라이프워크 2025 개최

서울시가 '약자와 동행하는 AI 도시'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스마트도시 전략의 중심행사인 '제2회 스마트라이프워크(Smart Life Week, SLW 2025)'를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SLW 2025는 서울시와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AI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200개 도시와 300개 기업, 6만 명의 국내외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사람을 위한 AI, 미래를 여는 스마트시티(AI fo

r Humanity, Smart Cities Leading Tomorrow)'를 슬로건으로, 기술이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현 방안을 공유한다.

이번 행사에는 SLW 쇼룸, 서울AI로봇쇼 등 다양한 전시관과 전문가 컨퍼런스, 스마트도시 시상식 등 총 3개 분야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SLW 쇼룸에는 LG U+, 아모레퍼시픽, 두산로보틱스, 신한은행 등 국내 대표 기업이 참여해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 기술 전시가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lhj@

효성, 국가유공자 건강 기원 삼계탕 기부

효성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효성은 중북을 맞아 서울남부보훈지청과 함께 국가유공자 200명을 대상으로 삼계탕, 삼계죽 세트를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삼계탕 세트는 무더운 여름철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자 마련됐다. 후원 물품은 조리 및 섭취가 편리하게 개별 포장된 삼계탕 5개와 삼계죽 4개 세트로 구성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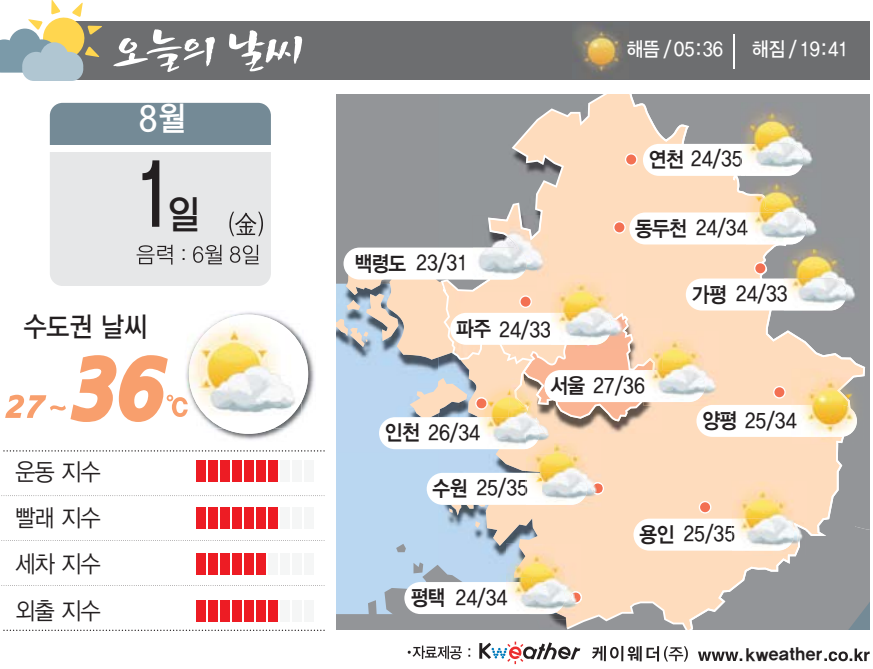


효성 임직원들이 지난 30일 중북을 맞아 서울남부보훈지청과 함께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찾아 삼계탕과 삼계죽 세트를 전달했다.

/효성

며 국가유공자 각 가정으로 직접 배송됐다.

/차현정 기자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여성 관객
만족도 1위

MUSICAL

HUNKY Show

오직 여성만을 위한 LADIES PARTY!

엄마와 딸, 동료, 그리고 현실에 지친 모든 여성들에게
유쾌하고 핫한 바텐더들이 특별한 밤을 선사합니다!



HUNKY
SHOW
보러가기



더 SEXY하고 화려하게 돌아온 화이트 코미디 뮤지컬

2025.4.25 - 8.31 스타스테이지

문의 | 주식회사 아트컴퍼니

070-4287-0258

<헝키쇼 실제 후기>

● k9872**님

★★★★★

어머니께 찐 효도하고왔어요!!^^

와~ 진짜 그런 찐 행복한 표정 처음 봤습니다.
엄마가 공연 끝나고 저에게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효도 다 했다!! ㅋㅋ 너무 고마워 ㅋㅋㅋㅋㅋㅋ
엄마도 여자라는 사실!!^^

● arri***님

★★★★★

눈호강 제대로 하고온 날!!!!!!

어머니께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겨드렸습니다.
엄마랑 이런 뮤지컬 관람나...? 싶었는데
안봤으면 죽을때까지 땅 치고 후회할 뻔!!!

● queeno***님

★★★★★

스트레스 땡!! 도파민 엔돌핀 뽀뽀!

최근들어 이렇게 웃어본적이 언제인가 싶네요.
너무 웃어서 눈물까지 났어요. 관객참여형이라 더 좋았고
열정적인 춤사위는 아이돌가수의 춤을 보는듯 했어요.

● louk***님

★★★★★

헝키쇼, 상상을 초월하네요

사실 젊은 친구들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시누이와 형님,
엄마와 딸, 다양한 연령대! "내 엄마도 여자다!" 그말에
참 많은 생각을하게했던공연이었습니다.
미친 퍼포먼스로 가슴이 땡 뚫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불균형과 과제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한국의 2025~2030 기간 잠재성장률은 1% 초반대로 매우 낮았는데, 여기엔 우리의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문제도 한몫한다. 저출산에 의한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우리의 경제사회에 주는 충격을 살펴보자. 이를 위해 몇 가지 통계청 자료를 보자.

먼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 1.0명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해, 2023년 0.72명으로 계속 하락하다가 2024년 0.75명으로 기대치 못한 반등이 있었다. 이는 전년 최저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 약간 흥분되지만, 고무적 현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우리나라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각각 2020년과 2019년을 기점으로 하락해, 2025년 현재 각각 5168만 명, 3591만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총소비의 축소와 함께 내수시장 위축을 가져오고 향후 인력난에 의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은 2025년 고령인구비율이 20.3%로서 일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웨덴에 이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더욱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 나타난 총부양비 수치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우려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7월 발간한 보고서에는 합계출산율 0.82명을 가정하는 경우 100년 후인 2125년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인구의 14.6%인 735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응을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5년 단위의 1차(2006~2010) 저출산 기본대책에 이어서 현재까지 4차(2021~2025)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역대 정부의 저출산 정책성과는 한마디로 실패 그 자체라 말할 수 있다. 이젠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제고 대책을 더 미룰 시간이 없다. 필자가 국회와 대학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고민했던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의 저출산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감소로 향후 발생할 사회경제적 손실은 이를 막기 위한 지출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들이 결혼 및

출산에 따라 현실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거주, 육아, 양육, 교육 등의 경제적 비용에 대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그동안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비혼출산’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솔직하게 공론화 장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주도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에 대한 국내 이민을 확대하고 해외인력 특히, 고급인력들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가 요구된다. 2022년 OECD 회원국 중 스페인의 출산율은 1.16명으로 한국보다 한 단계 높은 37위이지만 이민으로 전체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를 보강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과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넷째, 2019년부터 제외되었던 출산율 목표치를 다시 설정하고,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를 꼭 마련해야 한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필자의 이러한 제안들이 백년하청(百年河淸)의 일로 여기지 않길 바란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생산적 금융을 고민할 때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방패삼아 이자수익으로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 가계대출이 불어났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제를 위한 가산금리 인상이 수익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실적이 좋다는 것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만 외부의 시선이 굵지 않은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은행권은 금리 하락기를 맞아 예금금리를 내렸다. 앞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신금리도 내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55%로 작년 10월(3.37%) 이후 9개월 연속 하락했다.

반면 대출금리는 금리인하와 달리 오르 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월 기준 연 3.93%로 올해 2월(4.23%) 이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은행은 대출 금증세를 잠재우기 위해 대출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한다. 당분간은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도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당국의 관리 기조에 대응하면서 예대금리차(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는 확대됐다.

KB국민· 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6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1.418%포인트(p)로 집계됐다. 전월(1.336%p) 대비 0.082%p 확대된 수치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선 예·적극으로 받

을 이자는 줄여 들고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 부담은 커진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자장사’로 늘어난 은행 이익을 지적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그냥 자금을 출자하는 방법으로는 생산적 금융이 될 수 없다. 마중물과 같이 은행의 투자로 소비자들의 금융혜택이 늘어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시금 금융소비자와의 상생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생산적 금융은 무엇일까. 단순히 대출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을 뛰어 넘어,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금융활동이 생산적 금융이다. 즉, 은행 자금이 미래 성장동력이나 실물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상생금융을 통해 사회 환원에만 신경썼다면 좀 더 고차원적인 금융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yul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8월 1일 (음 6월 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평소예 물도 조심해서 마셔라. 48년생 관재수가 있으니 매매 시에 서명은 신중. 60년생 인수印線가 가세하면 문서운도 빛난다. 72년생 오래전 친구가 소식을 전해온다. 84년생 사업장이 적자赤字에서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



37년생 행운이 손짓하는 날이니 뜻한 바가 이뤄진다. 49년생 오늘은 붉은 색을 입으면 구실이 따른다. 61년생 재산증식의 힘은 움직이는데 있는데. 73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 85년생 일이 미뤄져도 기다려라.



38년생 자녀의 수험생은 책상배치도 중요하니 진단해보자. 50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절로 들어온다. 62년생 뛰다보면 행복이 온다. 74년생 부귀한 자가 칼을 얻는 격이니 실력을 배양. 86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39년생 금고를 들어놓는다면 북북동풍방향에 둘것. 51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으나 사람은 옛사람이. 63년생 성공의 척도는 양보다 질. 75년생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려거든 주변을 정갈히. 87년생 손톱 밑에 가시가 제거되니 후련.



40년생 진취적 행동이 타인의 모범이 된다. 52년생 삶의 중심에 항상 자기 자신을 뒤라. 64년생 재산을 증여받을 일이 생긴다. 76년생 아름다운 도화桃花가 합수를 하면 재물이 융성해진다. 88년생 아찬은 동쪽에 육찬은 서쪽예.



41년생 머리가 맑고 상쾌한 날. 53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남들의 질시를 받는다. 65년생 친구의 모임에 초대받음. 77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자중자재. 89년생 풍수에서는 색상이 지닌 영향력도 있음이니 의상 색도 중요.



43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하지만, 상연에서 재물은 늘어남. 55년생 어제의 바람이 태풍으로 온다. 67년생 스스로를 응원하며 가자. 79년생 밤이 깊으면 새벽이 멀지 않았다. 91년생 세상만사 새옹지마이니 일일일비보다는.



43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기가 끼지 않으니 부단히 노력. 55년생 피곤한 날이니 외출을 자제. 67년생 불황일수록 빨간색 상품이 잘 팔린다는 설이 있다. 79년생 호랑이새끼를 기르면 후환이 된다함이니. 91년생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44년생 산 좋고 물도 좋은데 내가 머물 곳은 아니다. 56년생 주황색 옷이 행운을 가져온다. 68년생 지인을 살피니 내 마음이 편하다. 80년생 돈이 흩어지면 책상배치를 바꿔보도록. 92년생 이상의 부적절한 관계는 반드시 망신을 당한다.



45년생 부부간에도 배려와 존중이 필요. 57년생 뒤편 열심히 하면 운도 따른다. 69년생 지는 태양을 막을 수는 없으나 미래를 위해 복습. 81년생 어부지리漁父之利가 되지 않도록 양보심을. 93년생 제면치리에 집안 경제가 거덜 나겠단.



46년생 종일 편안하다. 58년생 목공기술을 배우니 즐겁다. 70년생 뒷사람의 도움에 따른다. 82년생 위기일 때 마지막 수비자가 되는 하트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실력이지 고소·고발은 아니다. 94년생 먼 곳에 있는 것은 급할 때 소용없다.



47년생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될 것이다 외쳐보라. 59년생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감수해라. 71년생 지출이 많이 있으니 소품은 다음 날로. 83년생 작은 먼지로 눈이 매우 아프다. 95년생 운을 부르는 비결은 정리정돈에서부터 시작되니 실행.



김상회의四季 희망, 명리학

사람은 때때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곤 한다. 그런 때 많은 사람이 명리학이나 사주에 관심을 가진다. 명리학을 정해진 운명을 살피는 도구로만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한쪽 면만 보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또 다른 면은 희망을 찾아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명리학은 사주에 담겨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도록 이끌어 준다. 어떤 사주는 직업운이나 재물운이 약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명리학은 그 자체가 불행을 의미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명리학은 오히려 자기의 노력과 의지가 더해지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 명리학이 필요한 이유는 사주나 운이 나쁘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사주나 운을 바탕으로 난관을 해결할 현실적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희망을 심어주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게 사주 팔자학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주가 나쁘고 운세가 좋지 않음을 한탄한다.

사주를 좋고 나쁨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떤 사주든 어느 정도의 복은 품고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사주에 숨어 있는 복을 찾아내면 그 복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희망을 품을 수 있음이니 한탄할 것은 없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울 뿐이다. 명리학은 이렇게 숨은 복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학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기 사주와 운세를 알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린다면 명리학의 통찰을 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2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2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작출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스도쿠3650

스도쿠1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1	7	8	9	6	2	4	8
4	9	6	2	8	5	7	8	1
8	8	2	4	1	7	9	6	9
1	7	9	8	4	8	6	9	2
8	6	9	7	2	9	8	1	4
2	4	8	1	6	9	8	9	7
6	2	1	9	7	4	9	8	8
7	9	8	9	8	1	4	2	6
9	8	4	6	8	2	1	7	9

9	7	8	4	8	1	2	9	6
9	1	4	9	6	2	8	7	8
6	2	8	9	7	8	4	1	9
4	6	9	2	1	8	8	9	7
8	8	1	7	9	4	9	6	2
7	9	2	8	9	6	1	4	8
1	4	9	8	2	7	6	8	9
2	9	6	1	8	9	7	8	4
8	8	7	6	4	9	9	2	1

‘베리테’ 소노마의 진실과 진가… 라뮤즈·라쥬아·르데지르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상상을 한 번 해보자. 프랑스 보르도에서도 포트를 최고의 메를로와 생테밀리옹 최고의 카베르네 프랑과 포이악 최고의 카베르네 소비뇽을 섞어 와인을 만드는 꿈과도 같은 그런 상상 말이다.

보르도에선 불가능하지만 미국 소노마 카운티(이하 소노마)에선 가능하다. 신세계답게 와인양조에 제약이 없었고, 좋은 테루아가 다양성까지 갖췄다. 주요 평론가로부터 무려 26번이나 만점을 받은 소노마의 컬트와인 ‘베리테’다.

잭슨패밀리와인즈의 피에르 마리 마스터 소믈리에(사진)는 메트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베리테 와인은 소노마 테루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가장 잘 표현한다”며 “퀄리티에 있어서 타협은 없다는 것이 베리테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마스터 소믈리에에는 마스터 소믈리에 협회(CMS)가 1969년 첫 시험을 주관한 이후 전 세계에서 단 275명에게만 자격을 부여한 최고 등급의 소믈리에다. 잭슨패밀리에 속한 베리테가 한국에서 2015 빈티지를 출시하며 피에르 마리가



한국을 찾았다.

베리테는 캘리포니아에서 최고의 와인을 만들고자 했던 잭슨패밀리 창업주인 제시 잭슨이 프랑스 보르도의 천재 와인 메이커인 피에르 세이앙을 영입하면서 탄생했다. 이들이 선택한 곳은 이미 명성을 얻기 시작한 나파밸리가 아니라 소노마였다.

베리테(Verite)는 프랑스어로 진실을 뜻한다. 포도 재배부터 와인 양조까지 소노마 테루아가 하는 말, 즉 진실을 온전히 와인에 담겠다는 의도다.

베리테의 포도밭은 알렉산더 밸리와



▲베리테 르데지르, 베리테 라뮤즈, 베리테 라쥬아.

◀피에르 마리 잭슨패밀리와인즈 마스터소믈리에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베리테의 라뮤즈, 라쥬아, 르데지르 2015 빈티지를 소개했다. /아영FBC

초크 힐, 나이츠 밸리, 베넷 밸리에 위치했다. 토양과 미세기후, 고도 등의 특성에 따라 50개가 넘는 마이크로 크뤼로 구분해 각각 개별적으로 포도를 수확하고 발효, 숙성된다. 피에르 세이앙과 함께 와인 양조를 책임지고 있는 딸 엘렌 세이앙은 각 구획의 와인을 모두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한 다음 라뮤즈와 라쥬아, 르데지르 가운데 어느 와인에 적합할지 판단을 내린다.

피에르 마리는 “매년 정해진 블렌딩 비율이 없이 수백 가지에 달하는 구성 요소들을 블라인드 테이스팅만으로 조

화롭게 설계해 양조한다”며 “전적으로 사람의 미각에 의존한다”고 전했다.

베리테의 출발점은 ‘라뮤즈’다. 소노마에서 최고의 메를로 와인, 단 하나만 만들겠다는 것이 잭슨의 의도였으니 말이다. 그래서 1998년 첫 빈티지는 다른 이름이 없는 베리테로 출시됐다. 뮤즈(MUSE)가 보통 영감을 주는 원천인 것처럼 아름다움과 우아함, 정교함까지 와인 메이커로서 와인에 담고 싶었던 것을 모두 구현했다는 의미로 네이밍을 했다.

라뮤즈 2015는 메를로 90%에 카베르네 프랑 7%, 말백 3%를 블렌딩 했다. 메를로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과 탄닌이 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생생한 산미가 향후 숙성 잠재력을 가능케 했다.

‘라쥬아’는 카베르네 소비뇽을 주품종으로 한다. 블렌딩을 위해 재배한 카베르네 소비뇽인데 테이스팅을 해보니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했다. 큰 기쁨을 줬다고 해서 기쁨, 즐거움을 뜻하는 프랑스어 쥬아(JOIE)다.

라쥬아 2015는 카베르네 소비뇽의 비중이 75%다. 10년을 숙성했지만 여전히 젊고 밝은 색을 나타냈으며, 잘 익은 검은 과실과 허브향이 인상적이었다.

카베르네 프랑을 주품종으로 한 ‘르데지르’는 가장 마지막에 선보였다. 잭슨과 달리 카베르네 프랑에 애정을 가졌던 세이앙의 바람에 갈망을 뜻하는 데지르(DESIR) 와인이 2000년에 첫

빈티지로 선보였다.

르데지르 2015는 카베르네 프랑의 비중이 64%다. 밝고 뚜렷한 아로마와 함께 단단한 구조감이 균형을 이뤘고, 허브와 미네랄 느낌이 잘 표현됐다.

베리테는 매년 양조한 와인의 최소 30%, 많게는 절반 가량을 셀러에 저장해 놓는다.

피에르 마리는 “좋은 와인은 숙성할수록 아로마도 풍부해지고 복잡미가 더해진다”며 “베리테는 이런 장점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완벽한 조건에서 숙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셀러에 저장했다가 출시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번처럼 10년 묵힌 빈티지를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시음적기는 정해놓기 보다는 소비자들의 취향과 미각에 따른 선택”이라며 “미국이 출시 초기의 신선하고 오크 풍미의 와인을 좋아한다면 한국 소비자들은 유럽과 같이 좀 더 잘 숙성돼 복잡미 있는 와인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와인 한 잔에서 영감(라뮤즈)을 떠올리고 싶은지, 아니면 기쁨과 환희(라쥬아)를 맛볼지. 기자의 선택은 갈망(르데지르)이다. 지천명에 가까운 나이지만 여전히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특히 맛보고 싶은 와인은 너무나 많으니 말이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머신러닝 전문가가 말하는 ‘AI 실무 가이드’

‘당신은 AI를 개발하게 된다, 개발자가 아니더라도’는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기업들에 AI 성공 로드맵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는 IBM의 왓슨 개발에 참여했고, 빅테크 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머신러닝 조직에서 AI 개발의 성공을 이끈 두 머신러닝 전문가다. 머신러닝은 컴퓨터에 학습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통계 기법을 사용하는 인공지능의 하위 분야다.

성공적인 AI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법을 알려준다는 홍보 문구에 넘어가 책을 집어든 독자에게 저자들은 구글의 최고경영자이자 과학자 케시 코지르코프의 말을 빌려 따끔한 충고를 날린다. “잘 알지 못하는 AI 방식을 밀어붙이려는 리더는 아마추어처럼 보일 뿐 아니라 결국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솔루션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문제를 찾아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라. AI 없이 할 수 있으면 더 좋다.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은 다른 접근 방식으로 필요한 성과를 얻지 못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진짜로 전사적인 AI 전



당신은 AI를 개발하게 된다,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알라시 심프슨 로크워거, 월슨 팅 지음
이윤진 옮김/세이지

환의 필요성을 느낀 기업가라면, 가장 먼저 ‘골디락스 문제’를 발굴하라고 책은 조언한다. 이는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딱 알맞은 조건을 찾는 게 어려운 문제를 뜻한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토데스크는 수많은 고객 문의 사항 중 딱 하나, ‘비밀번호 재설정 요청’이라는 골디락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에 AI를 도입해 성공한 기업으로 꼽힌다.

인바운드(고객이 건 전화를 받아 처리하는 일) 문의 가운데 비밀번호 재설

정 요청을 골라내는 일은 자연어 처리에 적합한 작업이었다. “로그인이 안 돼요”, “비밀번호 재설정이 어려워요” 등과 같이 사람들이 대개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오토데스크는 비밀번호 재설정 요청을 인식하는 모델을 구축해 비밀번호를 새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평균 1.5일에서 10~15분으로 단축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델의 정확도가 높아졌고 처리 범위도 확장됐다. 오토데스크는 활성화 코드 요청에서 주소 변경, 계약 문제, 기술 문제 등 60가지 사용 사례를 인식하는 AI 모델을 만들 어냈다. 이러한 솔루션 덕분에 오토데스크는 고객 문의를 최대 99%까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책은 “처음 불거진 단순한 문제를 AI로 해소하고 이 가능성을 파악한다면 이후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자원을 훨씬 쉽게 얻을 수 있다”면서 본격적인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기 전 “머신러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규모와 영향력을 지닌 문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40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hjk10

광장의 문화정치

정원옥 외 14인 지음/동연



다. 시민과 광장을 잇는 매개자이자 사회운동의 주체인 활동가들은 오늘의 광장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마지막으로 연구

팀은 이번 탄핵광장에서 처음 등장했거나 주목할 만한 문화적 현상과 실천을 채집했다. ‘탄핵위키’가 바로 그것.

책에는 공동연구 성과 외에도 문화연구자와 활동가들의 글 8편이 함께 실렸다. 이 중 6편은 탄핵광장의 문화정치를 분석한 논문이고, 나머지 2편은 극우 대중의 부상을 다룬 글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시도와 쿠데타 모의로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려 했다. 시민들은 이에 맞서 평화롭고 끈질긴 저항 운동으로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썼다. 탄핵광장은 물리적으로 단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문화적 실천과 연대의 정치는 이후 세계를 상상하고 열어가게 출발점이 됐다. 광장의 기억을 통해 연대와 문화적 실천의 힘을 일깨워주는 책. 480쪽. 2만7000원. /김현정 기자



▲문체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스포츠 상품권 70만장 배포
▲‘무패의 사나이’ 한화 폰세, 대기록 향해 질주… 최다 14연승 정조준 /사진 뉴시스

▲오타니, 엉덩이 경련 증세로 강판…3이닝 2실점·5타수 무안타
▲손흥민, MLS 이적 대신 토트넘에 남나…“1년 계약 연장 가능성”

▲인니 축구팬, U-23 우승 실패에 분노…“신태용 감독 복귀시켜라”
▲세계육상연맹, 여자 선수 유전자 검사 의무화…통과 시에만 출전



대형마트
장보기 넘어
체험형 휴식 제공
L2

metro®

Life

LG전자
OLED 기술로
현대미술에 혁신
L4



신화 속 이야기 피어난 정원... 상상의 나래 펼쳐며 산책을

아파트의 미학(美學)

화성 비봉 에미지 센트럴에듀

만찬산, 동화천 등 주변 자연경관 뛰어나
단지내 조경 '그리스로마신화' 모티브로
망치·삼지창 등 조형물, 자연과 어우러져
신화적 상상력 담아 감각적인 분위기 조성

최근 찾은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화성 비봉 에미지 센트럴에듀'.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했다. 수인분당선 아목역에서 내려 1번 출구에서 22-7번 버스를 타고 10분 가량 걸렸다.

연회색 화강석으로 마감된 입구는 '에미지'로고가 중앙에 배치돼 깔끔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붉은색과 흰색 조합의 단지 외부는 도시적인 세련미를 더하고 단차를 따라 오르는 계단과 좌우에 식재된 조경수가 품격을 보여준다.

인근에 비봉나들목(IC) 등을 이용해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향후 고속철도(KTX) 여천역(2026년 예정)이 개통되면 전국 곳곳으로 이동이 수월해진다.

단지 인근에 만찬산, 왕래봉산, 동화천 등이 있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산책로와 연계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고 바로 앞에는 청연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단지에서 5km 떨어진 곳에 신세

계그룹이 약 4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2026년 착공 예정으로 2030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 진행에 속도가 점차 붙어 수혜가 기대된다.

금성백조건설이 시공한 화성 비봉 에미지 센트럴에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10개동, 총 917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전용면적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76㎡(442가구)와 84㎡(475가구)로 구성됐다.

정남향 위주 배치에 전 가구 4베이·맞통풍 구조로 선보인다. 천장고를 2.4m로 설계해 가구 내 개방감을 높였고 대형 드레스룸과 팬트리로 수납공간을 넉넉히 확보하고 다용도실 공간을 최적화해 공간 활용의 실용성을 높였다.

계단으로 올라가니 화성 비봉 에미지 센트럴에듀만의 그리스 로마신화를 모티브로 한 조경이 눈에 띄었다. 단지로 들어서면 카네이션 조형물이 보인다.

제우스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카네이션은 '어머니의 사랑'을 뜻한다. 하늘을 향해 만개한 꽃다발처럼 단지의 상징성과 생동감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고요한 잔디광장과 나무들 사이에 놓인 이 작품은 조경의 중심축이자 입주민의 시선을 머물게 한다.

그 옆에 자리한 서덕헌 작가의 작품 '소원'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날개짓하는 모습이 별과 함께 동화되는 듯한 모습을 통해 은유적으로 전달한다.

단지 뒷편에 위치한 놀이터에는 태양신 '아폴론'의 태양 마차를 모티브로 한 놀이기구가 설치돼 있다. 불꽃 모양이 감싼 붉은 수레와 구름 위를 달리는 말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신화 속 장면을 체험하도록 유도한다.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도 별자리 모양이 새겨진 원형 방패와 이를 이끄는 형형색색의 사슴 조형이 결합된 형태로, 마치 '별을 실어 나르는 마차'처럼 연출됐다. 신화적 상상력을 더한 디자인 덕분에 실용성과 조형미를 동시에 갖췄다.

잔디 정원 한가운데는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를 연상시키는 대형 망치 조형물이 꽃혀 있어 눈길을 끈다. 육중한 망치가 대지를 내리친 듯한 연출은 신화적 상상력을 자극하며 조경 공간에 역동적인 긴장감을 불러 넣는다.



옆에 자리한 휴게 공간은 태양계를 형상화한 행성 조형물이 설치돼 우주와 신화가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 공간을 연출한다. 거칠고 둥근 표면이 인상적인 운석 조형물도 놓여 있다. 깊이 패인 충돌 흔적과 불규칙한 외형은 마치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이 실제로 착지한 듯한 생동감을 더한다.

바람에 흩날리는 날개깃털 조형물은 생명의 기류를 형상화했다. 민들레 홀씨를 형상화한 설치물과 함께해 씨앗이 퍼지는 장면처럼 공간 전체에 생명감과 움직임이 흐르도록 연출됐다. 자연과 조형이 어우러진 이 공간은 단지 조경에 시적이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더한다.

단지 내 석가산 옆에는 신화 속 바다를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배치돼 있다. 조개껍질 모양의 구조물은 바다에서 솟아오른 생명의 기원을 형상화했다. 삼지창을 움켜쥔 거대한 손 조형물은 땅을 뚫고 솟아올라 시선을 사로잡는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연상시키는 이 장치는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를 상징하는 곰 조형물은 단지의 상징이다. 아르테미스에 의해 곰으로 변한 칼리스토와 그의 아들들을 하늘로 올려 보낸 제우스의 이야기가 시각적으로 구현돼 단지 내 조경 공간에 신화적 상상력과 교육적 요소를 더한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① 망치 조형물과 태양계를 형상화한 휴게 공간. ② 포세이돈 삼지창과 조화를 이루는 석가산. ③ 생명의 기류를 형상화한 바람에 흩날리는 날개깃털 조형물. ④ 태양계 행성을 설명하는 푼말. ⑤ 조각상 '소원' ⑥ 석가산과 조개 모양 조형물. /전지원 기자